

[서울1인가구 예술인 현황조사]

최종보고서

서울1인가구 예술인 현황조사

- 최종보고서 -

2021년 12월

총괄: (주)서울문화재단
연구기관: 피카다컴퍼니

차례

제1장 서론	p4
1.1. 연구 개요	p4
(1) 연구 배경	p4
(2) 연구 필요성	p7
(3) 연구 목적	p8
(4) 연구 문제	p9
1.2. 연구 설계	p10
(1) 연구 대상	p10
(2) 연구 범위	p11
(3) 연구 방법	p12
 제 2장 선행연구 검토	 p13
2.1. 1인가구에 대한 선행연구	p13
(1) 서울1인가구 현황	p13
(2) 1인가구 특성	p14
(3) 생활기반 4대 영역에서의 1인가구 성향	p15
2.2. 1인가구 지원제도 및 정책	p20
(1) 정부의 1인가구 지원 방향성	p20
(2) 서울시의 1인가구 지원 방향성	p21
2.3. 팬데믹 시대 예술인 현황 및 지원제도	p22
(1) 팬데믹이 예술인 삶에 미친 영향	p22
(2) 팬데믹 시대 예술인 지원제도	p23
 제3장. 현황조사 설계	 p24
3.1. 조사 설계 및 내용	p24
(1) 예술인 실태조사	p24
(2) FGI조사	p26
(3) 인터넷 서베이	p27
3.2. 분석 내용	p28

제4장 현황조사 결과	p29
4.1. 예술인 실태조사 기반 규모 추정 결과(2017년 기준)	p29
(1) 예술인 규모	p29
(2) 인구통계정보	p30
(3) 거주지 및 활동지 정보	p32
4.2. 서울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1인 vs 다인가구(2017년 기준)	p36
(1) 예술활동 및 내용	p36
(2) 고용형태 및 복지	p43
(3) 수입과 지출	p48
4.3. 서울1인가구 예술인 FGI 분석결과	p53
(1) FGI 결과로 본 1인가구 성향 종합	p53
(2) 4대 영역: 소득에 대한 의견	p55
(3) 4대 영역: 관계에 대한 의견	p57
(4) 4대 영역: 안전에 대한 의견	p59
(5) 4대 영역: 공간에 대한 의견	p61
(6) 정책에 대한 의견	p63
4.4. 서울예술인 인터넷 서베이 분석결과: 1인 vs 다인가구	p65
(1) 응답자 특성	p65
(2) 소득 영역 현황	p69
(3) 관계 영역 현황	p72
(4) 안전 영역 현황	p75
(5) 공간 영역 현황	p81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p83
5.1. 서울1인가구 예술인 분석결과 종합	p83
5.2.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	p84
 부록: 서울거주 예술인 4대영역 현황 온라인 설문조사 설문지	 p85

제1장.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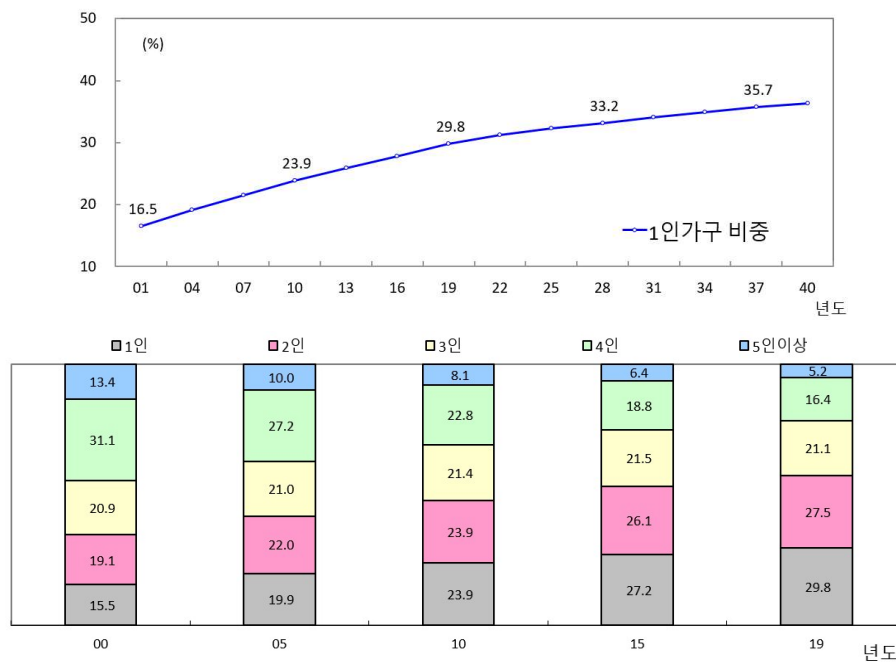
1.1.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대세가 된 ‘1인가구’

- 정부의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20.06.25) 발표 내용에 따르면, 1인가구의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해오고 있으며, 2015년 이후 주된 가구형태화가 될 것으로 전망함
- 「장래인구및가구추계(2001년~2014년)」를 보면, 1인가구 비중은 2019년 29.8%에서 2040년 35.7%를 넘어서는 지속 증가가 예상되며 OECD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함
 -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주된 가구형태는 2000년 4인가구(31.1%)→2010년 2인가구(23.9%)→2019년 1인가구(29.8%)임

[그림] 1인가구 비중 추이(장래가구추계) 및 가구원수별 비중(인구주택총조사)



[출처]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1]」 발표 내용

‘1인가구’ 중심의 정책설계로 전환

- 기존 공공부문의 정책설계는 대부분 다인가구 중심이었으나, 1인가구 비중에 가장 높아짐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20년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함으로써, 1인가구 관련 정부 정책 종합 점검 및 체계적 대응을 강조한 바 있음
- 주요 추진과제로 1인가구 생활기반별 5대 분야, “소득·돌봄”, “주거”, “안전”, “사회적 관계망”, “소비”를 선정, 생활기반형 맞춤형 대응과 1인가구 실태과악 강화를 제시함

[그림]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정책목표	1인가구 증가로 인한 경제·사회적 변화에 선제적 대응, 취약 1인가구의 빈곤, 사회적 고립감 등 삶의 질 개선	
5대분야 생활 기반별 정책 과제	① 소득·돌봄	② 주거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 자산형성지원사업 재구조화 - 24시간 돌봄서비스 추진 - 정신건강, 치매검진 등 돌봄 강화	- 청년, 고령층 맞춤형 지원 - 공유주택 활성화 기반 마련 -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후 가구수요에 맞게 공급 - 별도 거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원 검토
	③ 안전	④ 사회적 관계망
	- 사전 예방체계 확충 - 즉각대응시스템 구축	- 생애주기별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프로그램 다양화 및 확대 - 고독사 예방 노력 강화
	⑤ 소비	
	- 간편식품산업 활성화 및 지원 확대 - 외식업의 1인가구 메뉴개발 등 컨설팅 지원 - 생활 소비재, 스마트홈 산업 지원 - 온라인 판매산업 진출 및 지원 강화 - 로봇산업 활성화	

[출처]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1]」 발표 내용 및 연합뉴스(‘20.06.25) 발표 자료

서울시 '1인가구 포털' 오픈

- 서울시에서는 1인가구 특별대책으로 1인가구를 위한 정책과 정보를 모두 공유하는 원스톱 정보 제공 플랫폼인 '서울 1인가구 포털(<https://lin.seoul.go.kr>)'을 오픈함('20.09.01)
- 1인가구가 겪고 있는 5대 불안(일자리, 주거, 안전, 외로움, 질병)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하고 유동적인 맞춤형 정책을 제공함

[그림] 서울 1인가구 특별대책

비전	1인가구 삶의 질을 높이는 안심서울	
정책목표	1인가구 5대 불안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 1인가구가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생활하는 사회 인프라 구축	
분야 및 과제	① 일자리	② 주거
	- 일자리 정보 제공, 경제적 자립 지원으로 1인가구 빈곤 탈출 지원 - 중장년 1인가구 취약계층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지원	- 세대별 특화 주거 서비스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 도모 -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1인가구 주거복지향상
	③ 안전	④ 외로움
	- 1인가구 밀집지역 범죄피해 예방 지원 -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1인가구 안심 인프라 발굴 및 지원	- 외로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다각적인 서비스 지원 - 1인가구의 외로움, 우울에 대한 연구 및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⑤ 질병	
	- 1인가구 질병예방 대책 발굴 및 지원을 통한 생활 속 건강안전망 구축 - 균형 잡힌 식생활 지원으로 1인가구의 일상적 건강 유지 및 증진	

[출처] 서울1인가구 포털(<https://lin.seoul.go.kr>) 사업 내용 자료

(2) 연구 필요성

1인가구 맞춤형 지원구조, 예술인도 필요

- 1인가구가 보편적 삶의 형태로 확산되고 이에 초점을 맞춘 지원구조가 필요한 사회적 상황에서 1인가구 예술인에 대한 현황 및 실태조사가 필요함
- 예술인을 지원해야 할 책무를 지닌 공공기관은 1인가구에 적합한 지원정책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1인가구에 대한 유의미한 데이터 확보 및 현황분석을 통한 기반을 구축해야 함
 - 1인가구 예술인이 처한 사회구조적 상황을 이해함으로써 1인가구 예술인의 생활기반을 토대로 예술창작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지원구조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전망을 가져나가는 것임

[그림] 본 과업에 대한 예술인 자문 결과

“1인가구 예술인의 사회경제적 취약성과 구조적 문제에 대한 연구의 부재로 실질적인 현황 진단 및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1인가구 예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기초자료가 부족하다”

“사회복지 정책연구와 예술분야 복지연구 등에서는 1인가구라는 특수한 주거환경요인을 온전히 반영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다”

[출처] 서울문화재단 연구과제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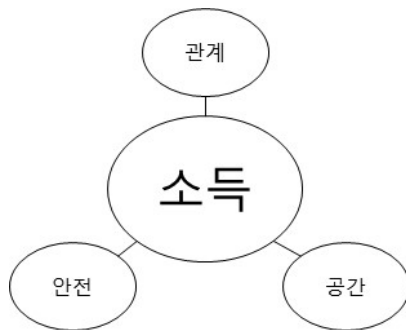
(3) 연구 목적

1인가구 예술인 현황조사를 통한 예술인 지원정책 방안 제시

- 본 연구는 1인가구 예술인에 대한 현황조사 분석을 통해 1인가구라는 사회구조적 특성과 예술인이라는 문화예술활동 특성을 파악하고자 함
- 현재 정부의 1인가구 정책 방향을 참조하여, 1인가구 예술인의 활동기반을 4대 영역 ‘소득’, ‘관계’, ‘안전’, ‘공간’으로 도출하고, 1인가구 예술인의 4대 분야 생활기반별 맞춤형 대응을 위한 예술인 지원 정책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임
 - 연구를 통해, 1인가구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더불어 취약 1인가구의 빈곤, 사회적 고립감 등 삶의 질 개선의 예술인 복지지원 정책까지 포괄함으로써 현재의 ‘소득’ 중심의 창작 지원 제도로 한정된 지원구조 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기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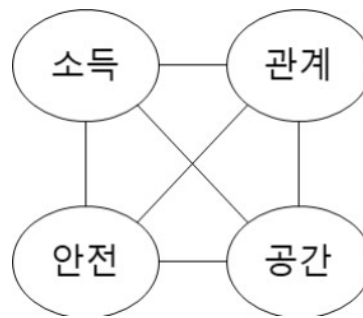
[그림] 예술지원 형태 As-Is와 To-Be

<As-Is 예술지원과 보편적 복지의 형태>



창작 지원(소득 지원) 중심

<To-Be 1인가구 예술인을 위한 실질적 복지>



4대 영역의 생활기반별 복지 증진

⇒ 1인가구 예술인은 ‘관계’, ‘안전’, ‘공간’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소득 지원을 받기 위한 심사와 정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1인가구 예술인을 위한 4대 영역 ‘소득’, ‘관계’, ‘안전’, ‘공간’에서의 균형 잡힌 지원 구조 체계를 통해 사각지대가 없는 실질적 예술복지사업 설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

(4) 연구 문제

1인가구 예술인에 대해 5가지 연구문제 선정

☐ [연구문제1] 인구·구조적, 사회·경제적 특성은 무엇인가?

- 인구통계정보, 예술활동 분야 및 내용, 고용형태, 근로환경, 복지, 수입/지출 등 분석
 -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 데이터 분석: 인구통계정보와 함께 3개 영역인 ‘예술활동 분야 및 내용’, ‘고용형태 및 근로환경’, ‘생활 및 복지’에 대한 조사 내용을 담고 있음

☐ [연구문제2] 지역적 분포는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

- 주거지에 있어서 세대별, 장르별, 직업별 지역분포 분석
 -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 데이터 내 ‘현거주지역’와 ‘주활동지역’ 분석

☐ [연구문제3] 특정 유형으로 구분되는가?

- 연구문제 1&2의 분석 내용 및 선행연구 검토, 인터넷 서베이와 FGI 분석 결과를 토대로 1인가구 예술인의 특성을 도출
 -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1인가구 특징 및 라이프스타일 분석, 1인가구 정책의 강/약점 분석
 - 인터넷 서베이와 FGI를 통해 1인가구 예술인의 활동(예술활동, 생활활동) 및 4대 영역(소득, 관계, 안전, 공간)에서의 니즈 분석

☐ [연구문제4] 지원정책의 방향성과 그에 따른 과제는?

- 1인가구라는 주거환경 특수성과 예술인이라는 직업환경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형태의 문화예술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그에 따른 과제를 도출

☐ [연구문제5] 지원을 위한 제도화 가능 영역은?

- 1인가구 예술인을 위한 서울문화재단의 역할을 직접사업과 연결사업으로 구분하여 제안

1.2. 연구 설계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서울1인가구 예술인

- “서울1인가구 예술인” 정의: 서울시가 현 거주지이면서 혼자 생활하는 가구이자 문화예술 분야 직업 종사자
 - 연령대별 그룹핑: 청년1인가구 예술인(39세이하), 중장년1인가구 예술인(40세~59세), 원로1인가구 예술인(60세 이상)
- 문화예술 분야 범위: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내용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예술인실태조사」의 분류를 참조하여, ①문학 ②미술 ③공예 ④사진 ⑤건축 ⑥음악(양악, 클래식) ⑦국악 ⑧대중음악 ⑨방송연예 ⑩무용 ⑪연극(뮤지컬, 오페라 포함) ⑫영화(애니메이션 포함) ⑬만화(웹툰 포함)의 총 13개 분야로 지정
- 직업 종사자 범위: 예술인이며, 창작인 그룹과 기획인 그룹으로 구분

[표] 예술인 구분: 창작인 그룹과 기획인 그룹

예술인 구분		개념	관련 분야/직업
창작인 그룹	음악예술인	음악을 통해 활동하는 창작 예술인	음악, 국악, 대중음악
	연행예술인	연기와 행위를 통해 출연자로 활동하는 창작 예술인	방송연예, 무용, 연극, 영화
	조형예술인	조형의 과정을 통해 활동하는 창작 예술인	미술, 공예, 사진, 건축
	문학예술인	언어나 그림을 표현매체로 하는 창작 예술인	문학, 만화
기획인 그룹	기획제작자	문화예술 기획, 연출, 제작 등의 활동가 및 스태프	공연 및 전시기획자, 감독, 연출가 등
	기획관리자	행정, 공연운영, 경영지원 등의 활동가 및 스태프	문화 및 예술 관련 관리자 등

(2) 연구 범위

조사 범위는 4대 영역의 예술활동과 일상생활

- 조사 범위: 서울1인가구 예술인의 활동 기반을 4대 영역인, ‘소득’, ‘관계’, ‘안전’, ‘공간’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 예술활동과 일상생활의 범위 안에서 조사

[표] 4대 영역 및 주요 과제

4대 영역	주요 과제
소득	- 경제력, 경제활동, 소비/지출, 고용형태, 근로환경, 일자리, 경력단절 등
관계	- 커뮤니티, 협업, 네트워크, 사회적 신뢰, 대외적 활동, 공동체 등
안전	- 외로움, 질병, 식생활, 건강관리, 4대보험, 안전사고, 미투운동, 노후대책 등
공간	- 거주공간, 예술작업공간(작업실), 외부활동 공간, 이동공간 등

[표] 4대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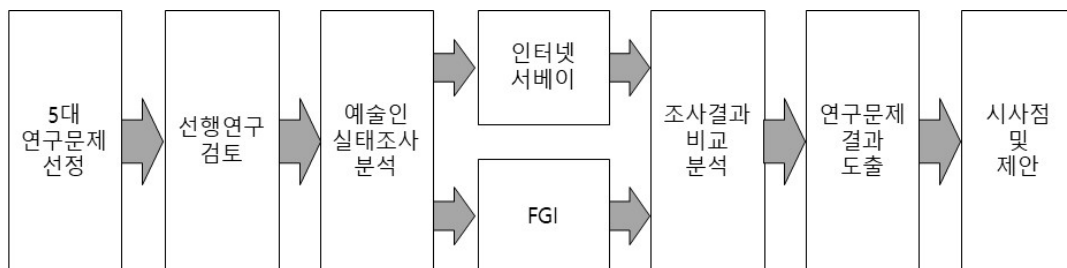
예술활동	생활활동
- 예술업무 중심 활동: 생계를 위한 예술 활동 중 창작 업무에 있어 중심이 되는 활동 (예: 화가는 그림 그리기, 작곡가는 곡 쓰기, 작가는 글쓰기, 기획자는 아이디어 구상하기 등) - 예술업무 주변 활동: 예술업무 중심 활동을 제외하고 창작 업무의 추진과 완성을 위한 모든 부가적 활동 (예: 기획자 컨택하기, 지원사업 신청하기, 업무를 위한 사회적 교류 등)	- 필수업무 활동: 예술활동과 무관한 생계유지를 위한 업무나 가사노동 등 (예: 수면, 식사, 씻기 등) - 취미여가 활동: 예술활동 이외의 시간으로 휴식과 즐거움, 자기 개발, 자유시간 등 (예: 친교/교류, 운동, 여행, 미디어 시청, 개인학습 등)

(3) 연구 방법

정량조사 + 정성조사

- 정량조사: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 + 인터넷 서베이
 - 예술인 실태조사: 예술인 표본집단 5,000명으로 전체 모집단 178,540명을 추정하여 실태조사를 수행¹⁾
 - 서울1인가구 예술인 표본집단 480명 (모집단으로 추정하면 20,568명)
 - 조사지역 및 조사기준시점: 전국 17개 시도, 2017.01.01.~2017.12.31.²⁾
 - 인터넷 서베이: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팝업 형태로 서베이 진행
 - 서울거주 예술인 대상 설문 응답자 최소 200명 기준 서베이 진행
- 정성조사: 선행연구 검토 + 서울1인가구 예술인 FGI
 - 선행연구 검토: 구글 검색(키워드: 1인가구, 예술인 등)을 통해 최근 5년의 논문 및 연구보고서 중 본 연구와 관련성이 높은 문헌에 대해 검토
 - 서울1인가구 예술인 FGI: 창작인 그룹(음악예술인, 연행예술인, 조형예술인, 문학예술인)과 기획인 그룹(기획제작자, 기획관리자)으로 구분하여 FGI 실시
 - 그룹별 추출을 통해 총 20명 기준 FGI 진행
- 진행과정

[그림] 연구 진행과정



1) 다만,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결측치 및 이상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응답자의 응답값을 제거하는 데이터 클리닝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최종 표본집단 4,932명으로 전체 모집단 178,540명을 추정하는 형태로 분석함

2)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조사기준시점 2020년)」는 내년 발표 예정으로, 3년마다 발표되기에 2018년도 조사 결과가 현재로는 가장 최근의 실태조사 자료임. 원데이터 다운로드는,

<https://policydb.kcti.re.kr/#/surveyArtists4?bbstypecd=3003011&poststatcd=1400> 에서 가능

(2) 1인가구 특성3)

자발적인 1인 생활, 자유로움과 불안감 혼재

- 직장 και 학교 등의 비자발적 계기가 많았던 과거와는 달리 자발적으로 1인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증가함
- 1인가구연구센터 「2020 한국 1인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1인 생활 시작 동기가 자발적인 경우는 42.5%이며, 비자발적인 경우는 39.9%임
 - 또한, 1인 생활을 장기간 유지하려는 예상자의 비중이 2018년 34.5%에서, 2019년 38.0%, 2020년 44.1%로 점차 증가함

[그림] 1인 생활 시작동기(%)



출처: 1인가구연구센터 「2020 한국 1인가구 보고서」

- 1인가구는 자기주도적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즐기며 만족도가 높은 동시에, 신체적·정신적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
- 「2020 한국 1인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1인 생활에 대해 약 60%가 삶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함
 - 하지만 다른 연구들에서 보면, 1인가구의 고용 불안과 주거 문제로 인한 경제적 불안정성, 식습관의 불균형으로 인한 신체·정신 건강의 저하 그리고 가족 및 사회적 관계의 부재로 인한 우울, 자살 생각, 외로움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3) 서울지역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현황조사에만 한정하지 않고, 국내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현황조사의 내용도 포함하여 정리함

(3) 생활기반 4대 영역에서의 1인가구 성향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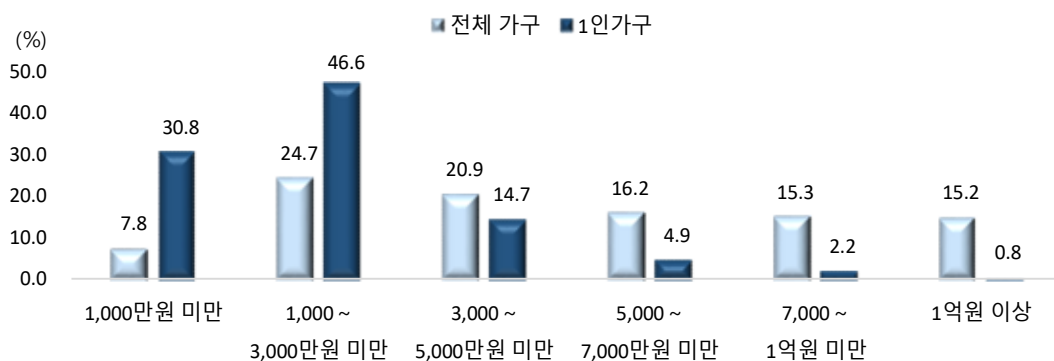
1) 소득

낮은 소득수준, 식비와 주거비 지출이 높음

□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수준을 가짐

- 「2021년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서 2019년 기준 1인가구 연소득은 2,162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이 5,924만원인 점에서 보면, 1/3 수준임
- 또한, 1인가구 10가구 중 약 8가구(1인가구의 77.4%=30.8%+46.6%)는 연소득이 3,000만원 미만임

[그림] 소득구간별 1인가구 비율 분포



출처: 통계청 「2021년 통계로 보는 1인가구」

□ 1인가구는 월소득의 절반 정도를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고, 다인가구에 비해 식비와 주거비 지출의 비중이 더 높음

- 「2020 한국 1인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1인가구 월평균 지출액은 141만원이고, 이 중 주거비는 26만원(12.0%), 식비는 36만원(16.8%)을 차지하여 주거비와 식비만으로 전체 지출액의 28.8%를 차지함
- 지출 중에는 여러 구독 서비스와 혼자 집에서 즐기는 문화생활, 렌탈 서비스 지출 등이 다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임

4) 서울지역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현황조사에만 한정하지 않고, 국내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현황조사의 내용도 포함하여 정리함

2) 관계

혼자사는 삶의 자유로움을 얻는 대신 사회적 관계망 약자

- 1인가구 급증으로 사회적 관계의 결핍에서 생기는 사회적 고립은 주요 과제이자 그 심각성이 더 심해지고 있음
 - 사회적 고립은 개인적인 이유로 사회적 교류를 하지 않는 자발적 고립감과 타인이나 상황에 의해 강요된 비자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된 고립까지 모두 포함되는데, 1인가구는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비자발적 고립 문제까지 겹쳐 이른바 ‘사회적 관계망 약자’가 됨
 - 이러한 사회적 고립은 한 사회의 시민으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사회보장권, 경제적 복지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가지고 살아갈 권리 등)를 누리지 못하는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야기시킴
- 다른 유형의 가구들이나 연령대들보다도 특히 청년1인가구에서는 타인과의 상호교류 수준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크게 증가하나, 오히려 사회적 네트워크는 반대로 가장 약한 성향이 있음
 - 노혜진(2018)의 「청년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연구에 따르면, 청년1인가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은 약 74분으로 다른 유형 가구들의 55~60%에 불과할 정도로 짧음
 - 하지만, 청년1인가구 중에서도 여성이면서 월평균 개인소득이 300만원 이상이자 전문직일 때는 사회적 관계 시간이 긴 편으로 나타남

[그림] 타인과의 하루 평균 교류 시간

연령대	가구유형	하루 평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
청년	1인가구	74.2분
	다인가구	121.8분
중장년	1인가구	121.9분
	다인가구	137.5분
전체		128.5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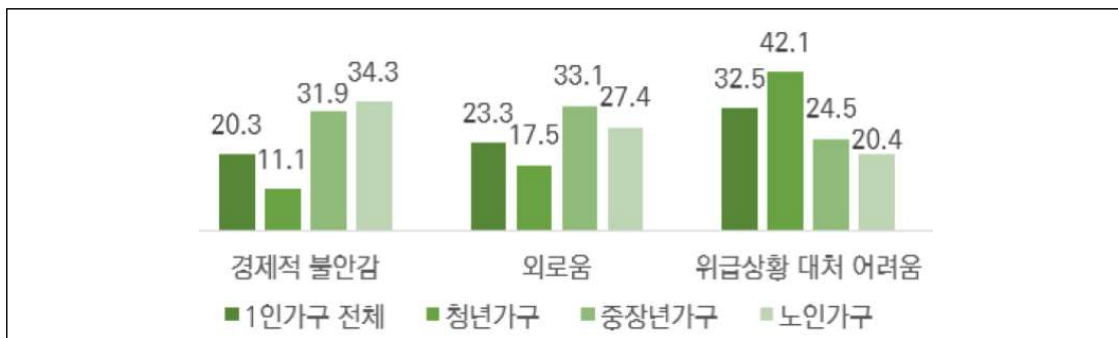
출처: 노혜진(2018) 「청년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3) 안전

범죄·위험, 외로움, 건강문제, 식사해결 어려움 등에 노출

- 1인가구는 독자적으로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범죄피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함께 가지고 생활함
 -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의 「1인가구 밀집지역의 안전실태와 개선방안」에 따르면 1인가구 밀집지역은 비밀집지역보다 2~3배의 높은 범죄발생률을 보임
 - 게다가,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거주지 이동이 잦고, 월세 등의 주거비 부담이 크다보니 거주지 주변 환경의 안전까지 미처 고려할 수 없거나 스스로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거주지의 안전을 강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1인가구의 외로움과 우울증은 새로운 사회적 질병이 됨
 - 「2020 서울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거주 1인가구가 혼자 살면서 가장 힘든 점으로는 ‘위급상황 대처 어려움’(32.5%)이고, 그다음 ‘외로움’(23.3%), ‘경제적 불안감’(20.3%) 순임
 - 연령대별로 보면, 청년1인가구는 ‘위급상황 대처 어려움’(42.1%), 중장년1인가구는 ‘외로움’(33.1%), 노인1인가구는 ‘경제적 불안감’(34.3%)이 상대적으로 가장 큼

[그림] 서울1인가구 “혼자 살면서 가장 힘든 점” 응답자 비율



출처: 「2020 서울복지실태조사」

□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질병 위험도가 높은 편임

- 1인가구는 대체적으로 건강관리에 소홀하고, 식습관(잘은 외식, 가공 식품 선호, 영양 불균형 등)이나 생활 습관(흡연, 음주, 수면부족 등) 등으로 각종 질병에 더 쉽게 노출됨
- 「1인가구 성인의 건강행태」에 따르면, 1인가구의 연령별 질병 위험도에 서, 30~40대는 관절염(4.60배)과 자살사고(4.01배), 50~60대는 자 살사고(3.65배)와 우울증상(2.30배), 70대 이상에서는 복부비만(2.55 배)와 대사증후군(2.12배) 위험도가 높게 나타남

[그림] 동일 연령대 다인가구와 비교한 1인가구의 상대적인 질병 위험도

질병	모든 연령대	30~40대	50~60대	70대 이상
스트레스	1.31배	1.42배	1.61배	1.32배
우울증상	2.38배	1.79배	2.30배	1.78배
자살사고	2.90배	4.01배	3.65배	1.09배
고혈압	2.61배	2.73배	1.48배	1.20배
관절염	2.95배	4.60배	1.93배	1.31배
대사증후군	1.78배	0.88배	0.99배	2.12배
복부비만	1.95배	0.73배	1.36배	2.55배

출처: 대한가정의학회지(2017) 「1인가구 성인의 건강행태」

4) 주거

월세 거주, 주거비 부담 높고 주거환경 열악

- 1인가구는 월세에 거주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고, 주거비 부담이 높음
 - 국토연구원의 2021년 발표 「1인가구 연령대별 주거 취약성 보완방안」에 따르면, 보증금 있는 월세 거주 비율이 청년1인가구는 54.6%, 중장년1인가구는 39.5%이며, 보증금 없는 월세 비율까지 합치면, 청년은 65.5%, 중장년은 51.1%임
 - 주거비 과부담 1인가구(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가구)는 청년은 31.4%, 중장년은 21.1%, 노인은 43.7%임
- 1인가구의 좁은 주거공간 면적과 단기 거주기간으로 인해 주거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함
 - 「2021년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서 보면, 2020년 기준 주거면적 40m²(약 12평) 이하에 거주하는 1인가구가 전체의 50.5%로 절반을 차지함
 - 이에,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우선순위가 전세자금 대출(32.4%), 월세 보조금(19.5%), 장기 공공임대 주택 공급(15.9%), 주택 구입 자금 대출(15.8%) 순으로 나타남
 - 국토교통부 「2019 주거실태조사」에서 보면, 1인가구 민간임대의 평균 거주기간은 2.5년이고, 특히 청년은 0.9년으로 1년도 되지 않아 거주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음

[그림] 청년1인가구 “주거 난민” 기사 내용

청년 1인가구 ‘주거 난민’ 전락...1인 가구 914만, 전체의 39.5%
높아진 월세에 대부분 주거비 과부담...10명 중 3명 월 소득의 30% 이상 지출

사례1.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대학생 K씨는 지난 2년 동안 5번 이사했다. 고시원에서 오피스텔, 원룸, 셰어하우스, 하숙을 전전했다. 그가 거의 5개월마다 한 번씩 집을 옮겨 다녀야 했던 이유는 월세 외에도 안전 때문이었다. K씨는 “고시원에서는 지나치게 좁은 방과 보안 문제가 걸렸고 원룸에서는 사생활 침해, 택배상자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가 유출될까 걱정됐다”며 “누군가와 같이 살면 덜 무섭기도 하고, 같은 월세로 훨씬 좋은 상태의 집에 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공동생활에 정착했다”고 말했다.

사례2. 대학 시절부터 10년간 자취생활을 했다는 30대 직장인 Y씨는 해마다 주거환경이 악화하는 게 놀랍다. Y씨는 “월세 부담 때문에 반지하부터 옥탑방, 친구와 단칸방을 나눠쓰는 경험까지 모두 해봤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 새로 생기는 신축 원룸을 보면 임대료는 비슷한데 방 면적이 예전에 비해 훨씬 좁다”며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청년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하는데 딱히 무엇이 나아졌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한국부동산신문 기사(2021.05.12.) <http://xn--2q1bv3l9zbk3e9qd.com/detail.php?number=4031>

2.2. 1인가구 지원제도 및 정책

(1) 정부의 1인가구 지원 방향성

1인가구 특성별 지원정책 구성 및 IT기술과의 연계

- 1인가구 지원정책은 정부차원과 지역차원에서 포괄적인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지만, 성·연령대별 및 카테고리에 따른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이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종합적인 지원정책 제시와 함께, 안전, 주거, 건강, 사회적 관계망, 생활보장, 일자리 등 여러 분야 혹은 영역으로 구분하여 카테고리화하고 지원정책을 구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함
 - 예로, 청년층에는 주로 주거 지원으로 주거 안정화를 돕고자 하고, 고령층에는 사회적 관계망 강화 및 돌봄 지원으로 고독사 예방과 외로움 해소에 집중하고, 여성층에는 안전 지원으로 집중함
- 4차산업혁명에 맞추어, 1인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신산업(예: 솔로 이코노미) 육성 지원과 같이 온라인 환경 및 IT기술과 연계하여 1인가구를 지원하고자 함
 - 솔로 이코노미 사업(Solo-Economy): 싱글들을 위한 맞춤형 그룹여행, 간편식 음식사업, 공유카, 코리빙쉐어하우스, 언컨택트마케팅 등
 - IT결합 형태: 고령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안전 지원을 위한 IoT 서비스, 여성안심앱 및 112·119 상황실을 즉시 연계·지원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연계망 구축 사업, 1인가구 스마트홈 서비스 실증사업 및 무인배송 등 AI기반 맞춤형 서비스 개발, 청년·고령1인가구 등을 위한 서비스 로봇 공급 확대, 임대·공유서비스 지원 등

(2) 서울시의 1인가구 지원 방향성

‘1인가구 특별대책 추진단’ 출범 및 ‘서울1인가구포털’ 운영

- 서울시는 2021년 7월 1인가구 종합 대책을 내놓기 위한 ‘1인가구 특별대책 추진단’을 출범, 1인가구의 5대 불편(안전, 질병, 빈곤, 외로움, 주거) 해소를 위한 맞춤형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함
- 2021년 9월에는 ‘서울1인가구포털’을 오픈, 서울시 및 자치구가 1인가구를 위해 펼치고 있는 지원 정책과 참여 프로그램 정보를 공유함
 - 특히, 거주지역(자치구), 성별(남, 여), 연령(20대 이하,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카테고리(안전, 주거, 경제·일자리, 외로움, 질병)로 분류하여 맞춤형 정보를 검색할 수 있음

[그림] ‘서울1인가구포털’의 대표적인 지원제도

1인가구 포털에서 안내하는 지원제도

- 주거 : 청년 월세지원, 역세권 청년주택,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
- 안전 : 1인가구 도어지킴이, 안심마을 보안관, 여성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등
- 질병 : 병원안심동행, AI·IoT기반 어르신건강관리, 찾·동 방문건강관리 등
- 빈곤 : 서울형 기초보장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등
- 외로움 : 사회적관계망 지원, 마음상담 지원, 이웃살피미, 어르신 여가지원 등

출처: 내 손안에 서울뉴스 기사(2021.08.31.)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26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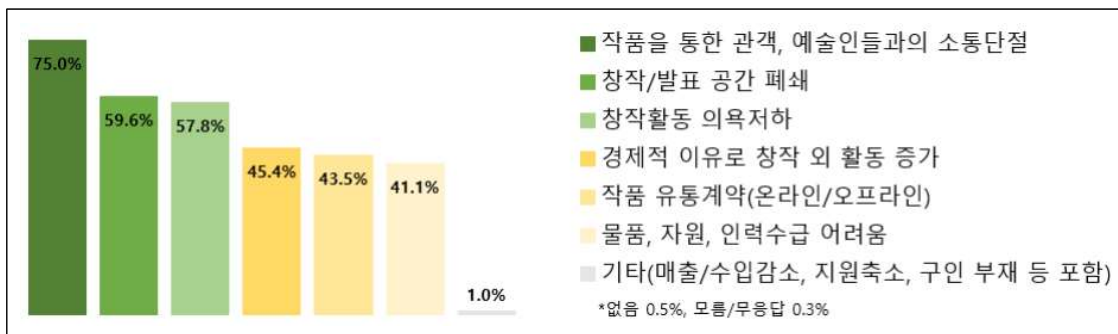
2.3. 팬데믹 시대 예술인 현황 및 지원제도

(1) 팬데믹이 예술인 삶에 미친 영향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 코로나 블루, 소통단절

- 예술인의 소득수준과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감은 예술인의 스트레스 및 코로나 블루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
 - 장우현&이지연(2020)의 「코로나19가 예술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 실태조사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예술인의 예술 활동이 감소하였고 사회경제적 수준이 저하됨
 - 예술인복지재단의 2021년 10월 7일 국정감사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예술인 심리상담 사업 신청건수가 전년 대비 127% 증가했고, 예술인의 심각한 우울경험 비율이 일반인의 6배 수준이며, 이에 많은 예술인이 심리상담을 쉽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음
- 코로나19로 인한 예술활동 피해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소통단절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코로나19 대응 예술현장의 위기인식 실태조사(예술인)」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예술활동 피해로 ‘작품을 통한 관객, 예술인들과의 소통단절’이 75.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단체, 커뮤니티 등 창작 네트워크가 와해될 것 같은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54%가 ‘그렇다’라고 답함

[그림] 코로나19로 인한 예술활동 피해 양상 (응답자 비율, 복수응답)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코로나19 대응 예술현장의 위기인식 실태조사(예술인)」

(2) 팬데믹 시대 예술인 지원제도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서 지원제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 포스트 코로나 대비 예술계 지원제도에 관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지역 예술지원 현황 간담회’, ‘공연장 상주단체 간담회’, ‘청년예술가 간담회’ 등을 진행함
 - 2022년은 제반 절차 간소화 등은 물론,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 강화 목소리를 수용하자는 의견이 대세를 이룸
 - 코로나19로 문화예술 영역이 메타버스, NFT 등의 IT기술 영향을 더욱 급격하게 받는 상황이 됨에 따라 향후 온라인 세계의 확장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함
-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2021년 7월 총 3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예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힘
 - 예술활동의 플랫폼이 온라인으로 점차 확대됨에 따라 미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함
 - 라인 플랫폼 기반의 지원사업인 ‘아트 머스트 고 온’
 - 예술을 통해 사회적 거리를 좁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예술가들에게 창작 준비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지원함
 - 예술인 창작 준비 지원사업인 ‘서치 예술적 거리두기 해제법’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9월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예술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코로나 일상 속 비대면 예술 지원 방안’을 발표함
 - 예술이 고정된 틀이나 관성에서 벗어나 환경변화에 발맞춰 진화할 수 있도록 창작·유통·향유 전반에 비대면·온라인 방식을 도입해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함

제3장. 현황조사 설계

3.1. 조사 설계 및 내용

예술인 실태조사 + FGI조사 + 인터넷 서베이

(1) 예술인 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예술인 실태조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예술인 대상 조사’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조사임
 -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에 대해 파악하여,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국내 유일의 예술인 대상의 전국 단위 조사로, 예술인 전체 모집단을 추정하기 위해 14개 분야, 17개 시도별 층화무작위추출법을 사용함
 - 전체 모집단 178,540명 구성 방식(2018년 기준): 예술활동증명 신청 예술인(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 경력증명 시스템 DB정보)+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수혜 예술인(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DB정보)+예술관련 협회 및 단체 회원 가입 예술인(64개 예술관련 협회 및 단체의 회원정보)
- 본 연구에서는 2017년도 기준의 서울1인가구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함
 - 2021년 12월 현재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예술인 실태조사는 2018년도에 시행한 것으로 조사 기준 시점은 2017년도임
 - 조사 대상 분야는 14개로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대중음악’, ‘방송연예’, ‘무용’, ‘연극’, ‘영화’, ‘만화’, ‘기타’임
 - 예술인 실태조사는 세 가지 영역인 ‘예술활동분야 및 내용’, ‘고용형태 및 근로환경’, ‘생활 및 복지’로 구성되어 있음

[표] 「2018년도 예술인 실태조사」 조사 영역과 조사 내용

조사 영역	조사 내용
예술활동분야 및 내용	현재 활동하고 있는 예술분야 및 주 활동 분야
	주 활동분야의 예술작품 발표 및 참여횟수
	주 활동 예술분야 입문 연도 및 경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예술분야의 직업 및 주 활동 직업
	외국 예술활동 경험
	문화예술교육 활동 종사 여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보유 여부
	예술분야 자원봉사(재능기부) 참여 경험
	개인 창작 공간 보유 현황(크기 및 소유 형태)
고용형태 및 근로환경	전업 예술인 여부
	예술활동, 예술관련(교수, 강사 등) 및 비예술 직업 고용형태
	- (전업)예술활동 직업의 고용형태
	- (겸업)예술활동, 예술관련(교수, 강사 등), 비예술 직업의 고용형태
	- (겸업)예술활동 외 직업의 업무 내용 및 겸업 이유
	- (겸업)예술활동, 예술관련(교수, 강사 등) 및 비예술 직업의 연 평균 투입시간 현황
	프리랜서 활동 여부
	예술활동 관련 계약 체결 현황
	- 전체 계약 건수, 전체 계약 중 서면 계약의 건수
	- 서면계약 중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및 건수
	- 전체 계약 중 성실하게 이행된 계약 건수
	- 전체 계약 중 부적절, 부당 계약 여부 및 내용
	- 실제 계약 내용(형태, 기간, 금액 및 연습기간 포함 여부)
생활 및 복지	예술활동, 예술관련(교수, 강사 등) 및 비예술의 수입, 지출 현황
	예술활동의 주 수입원 현황
	저작권(인접)권 보유 여부
	문화예술행사 관람 현황
	4대보험 가입 현황
	- 공적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현황
	- 기초연금, 노령연금 수급 현황(만65세 이상)
	실업급여 수혜 경험
	- 실업급여 수혜횟수 및 금액
	예술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경험
	- 상해보상 여부
	예술계 입문 이후 1년 이상 예술활동 경력 단절 경험
	- 예술경력단절 횟수, 기간, 이유

(2) FGI조사

- 본 연구에서는 서울 거주 1인가구 예술인을 대상으로 현재 2021년에서의 현황조사를 하고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실시함
- 직업에 따라 창작인 그룹 4개(음악, 연행, 조형, 문학예술인)와 기획인 그룹 2개(기획제작자, 기획관리자), 총 6개의 예술인 그룹에서 성별과 연령대별 추출을 통해 최종 서울1인가구 20명을 대상으로 함
 - 12월 초에 FGI를 실시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줌(Zoom) 미팅과 전화 인터뷰로 진행함
 - 인터뷰 질문지 구성은 1인가구 예술인만의 예술활동 특징을 4가지 영역(소득, 관계, 안전, 공간)으로 나누어 질문하고, 1인가구만을 위한 지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

[표] FGI 인터뷰 참가자 정보

구분		인터뷰 참가자 수		성별	연령
창작인 그룹	음악예술인	4명	클래식 1명 대중음악 1명 국악 1명	남성 2명 여성 2명	20대 2명 30대 2명
	연행예술인	4명	연극/뮤지컬 4명	남성 1명 여성 3명	20대 1명 30대 1명 40대 1명 50대 1명
	조형예술인	4명	미술 3명 사진 1명	남성 1명 여성 3명	20대 1명 30대 1명 40대 2명
	문학예술인	3명	작가 2명 시인 1명	남성 2명 여성 1명	30대 1명 40대 2명
기획인 그룹	기획제작자	3명	공연기획 2명 예술일반 1명	남성 1명 여성 2명	20대 1명 40대 2명
	기획관리자	2명	기획제작 겸 관리자 2명	여성 2명	30대 2명
총		20명		남성 7명 여성 13명	20대 5명 30대 7명 40대 7명 50대 1명

(3) 인터넷 서베이

-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서베이를 통해 서울 거주 예술인의 현황 및 특성을 1인가구와 다인가구로 구분하여 분석함
- 1인가구 예술인의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기존 예술인 실태조사는 시기도 맞지 않고(2017년의 현황), 보편화된 질문(예술인이라는 직업 특성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아쉬운 점이 있었음
 - 이에, 본 인터넷 서베이에서는 가구유형에 따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을 구성하여 기존 선행연구 결과를 보완함
 - 12월 17일 하루동안 인터넷 서베이를 실시했으며, 서울문화재단 회원 및 문화예술 인플루언서 SNS(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서 홍보하여 진행하였고, 현 거주지를 '서울'로 선택한 응답자에 한해서만 설문조사를 수행함

[표] 서울 예술인 인터넷 서베이 조사 내용

조사 영역		조사 내용
응답자 기본 정보		■ 현 거주지, 성별, 연령 ■ 가구원 수 (1인가구일 경우: 혼자 생활 시점, 자발/비자발 동기)
예술활동 내용		■ 주 활동 장르, 주 활동 범위, 입문연도 ■ 근로시간: 예술활동(본업) 시간, 부업활동 시간
4대 영역 현황	소득	■ 예술활동 실제 수입, 예술활동 적정 수입, 부업 수입 ■ 수입 만족도
	관계	■ 업무관계 교류 사람수, 업무관계 교류 만족도 ■ 친교관계 교류 사람수, 세대 간 교류정도
	안전	■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불안, 주거비 부담 완화 적정 지원금액 ■ 생활비 부담으로 인한 불안 ■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
	공간	■ 거주지 선택 이유 ■ 직주 근접 여부

3.2. 분석 내용

서울1인가구 예술인 규모 파악 및 1인과 다인가구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

- 예술인 실태조사를 통해서는, 서울1인가구 예술인 규모를 추정하고, 추정한 예술인 수 비율을 토대로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실태를 비교함
 - 전체 예술인 혹은 서울 예술인 중 서울1인가구 예술인 규모를 파악하고, 인구통계정보와 거주지역 및 활동지역을 알아봄
 - 서울거주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실태 비교를 통해 예술활동 및 내용, 고용형태 및 복지, 수입과 지출에 대해 살펴봄
- FGI조사를 통해서는, 서울1인가구 예술인 20명의 의견을 통해서 1인가구로 생활하는데 있어서의 성향과 고충, 지원 정책의 요구사항을 들어 봄
 - 1인가구 예술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향, 창작활동과 일상생활에서 겪는 고충에 대해 소득, 관계, 안전, 공간이라는 4대 영역으로 살펴봄
 - 1인가구 예술인이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기 위해 어떤 지원정책들이 필요하고 그 방향성을 어떻게 해야하며(직접 지원 혹은 간접 지원 형태), 4대 영역 중 어느 영역을 중요시 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봄
- 인터넷 서베이를 통해서는, 현재 2021년에서의 서울거주 예술인의 4대 영역에 대한 상황을 1인가구와 다인가구로 나누어 비교 분석함
 - 소득, 관계, 안전, 공간이라는 영역에서 가구의 형태에 따라 구분되는 특성과 가구의 형태와 상관없이 구분되지 않는 특성들을 찾아봄
 - 코로나19 상황 속에서의 1인가구의 현재 현황과 어떤 부분의 지원이 필요한지를 살펴봄

제4장. 현황조사 결과

4.1. 예술인 실태조사 기반 규모 추정 결과(2017년 기준)

(1) 예술인 규모

서울1인가구 예술인은 20,568명으로 추정

- 국내 예술인 모집단 178,540명 중 서울1인가구 예술인은 20,568명으로 1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중음악(21.0%)’과 ‘연극(15.1%)’ 분야 예술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국내 예술인 전체 178,540명 중에 서울 거주자는 69,012명으로 전체의 38.7% 비율이며, 이 중에 1인가구는 20,568명임

[표] 국내/서울/서울1인가구 예술인 규모

국내 예술인 모집단	서울 예술인 모집단	서울1인가구 예술인
178,540명	69,012명 (38.7%)	20,568명 (11.5%)
표본 4,932명에서 추정	표본 1,360명에서 추정	표본 480명에서 추정

[표] 모집단 문화예술분야 비율

분야		국내 예술인	서울 예술인	서울1인가구 예술인
음악예술	음악	6.8%	6.6%	7.3%
	국악	7.8%	9.4%	8.7%
	대중음악	14.2%	16.8%	21.0%
연행예술	연극	10.8%	13.1%	15.1%
	영화	4.2%	6.6%	8.4%
	방송연예	5.0%	6.0%	6.4%
	무용	3.5%	4.3%	3.6%
조형예술	미술	25.2%	20.2%	14.9%
	공예	2.4%	1.7%	2.4%
	사진	6.6%	3.4%	2.4%
	건축	2.3%	2.6%	1.1%
문학예술	문학	8.1%	6.2%	5.1%
	만화	1.1%	1.3%	1.4%
기타	기타	2.0%	1.9%	2.2%
전체		100%	100%	100%

(2) 인구통계정보

서울1인가구 예술인은 남성, 30대, 대졸, 월세

1) 성별·연령대별 분포

□ 서울1인가구 예술인 전체 20,568명에서, 남성 비율이 60.2%이고 30대 비율이 37.6%이며, 특히, 남성 30대는 전체의 41.9%임

- 국내 예술인 연령대별 분포와 비교하면, 전체에서 30대 비율은 20.2%이나, 서울1인가구 예술인은 30대가 37.6%로 많은 편임
- 여성은 남성의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60대 이상의 비율이 22.1%로 높은 편으로 나타남
- 국내 예술인의 평균 연령은 52세이고, 서울1인가구 예술인의 평균 연령은 이보다 낮은 45세임

[표] 성별·연령대별 분포 및 평균 연령

구분		국내 예술인	서울1인가구 예술인
성별	남성	61.5%	60.2%
	여성	38.5%	39.8%
전체		100%	100%
연령대별	20대 이하	4.7%	6.8%
	30대	20.2%	37.6%
	40대	20.8%	28.7%
	50대	20.3%	10.5%
	60대 이상	34.0%	16.4%
전체		100%	100%
평균 연령		52세	45세

[표] 서울1인가구 성별×연령대별 교차표

성별	남성	여성
연령대별		
20대 이하	5.1%	9.4%
30대	41.9%	31.2%
40대	29.5%	27.3%
50대	10.8%	10.0%
60대 이상	12.7%	22.1%
전체	100%	100%

2) 학력 및 예술계 학력 보유 여부

- 서울1인가구 예술인의 학력을 살펴보면, 대졸이 53.4%로 가장 많음
- 서울1인가구 예술인의 예술계 학력 비율은 65.1%로 10명 중 약 7명이 예술계 출신임

[표] 학력 분포 및 예술계 학력 보유 여부⁵⁾

구분		국내 예술인	서울1인가구 예술인
최종 학력	고졸 이하	19.3%	22.2%
	대졸	51.8%	53.4%
	대학원 이상	28.9%	24.4%
전체		100%	100%
예술계 여부	예술계 학력	63.5%	65.1%
	일반계 학력	36.5%	34.9%
전체		100%	100%

3) 주거 형태

- 국내 예술인의 주거 형태는 ‘자가(55.1%)’가 가장 많으나, 서울1인가구 예술인은 ‘월세’가 54.8%로, 10명 중 약 5명이 월세임
- 서울1인가구 예술인 중 주거 형태가 ‘자가’인 경우는 16.8%뿐이고, 상대적으로 ‘전세(23.2%)’와 ‘월세(54.8%)’ 비율이 높음

[표] 주거 형태 분포

구분	국내 예술인	서울1인가구 예술인
자가	55.1%	16.8%
전세	16.2%	23.2%
월세	23.0%	54.8%
무상	1.4%	1.6%
기타	4.3%	3.6%
전체	100%	100%

5) 학력에 대해서 무응답자는 제외하고 비율을 산정했으며, 예술계 학력의 경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원), 외국 유학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 예술계로 다녔을 경우 예술계 학력으로 구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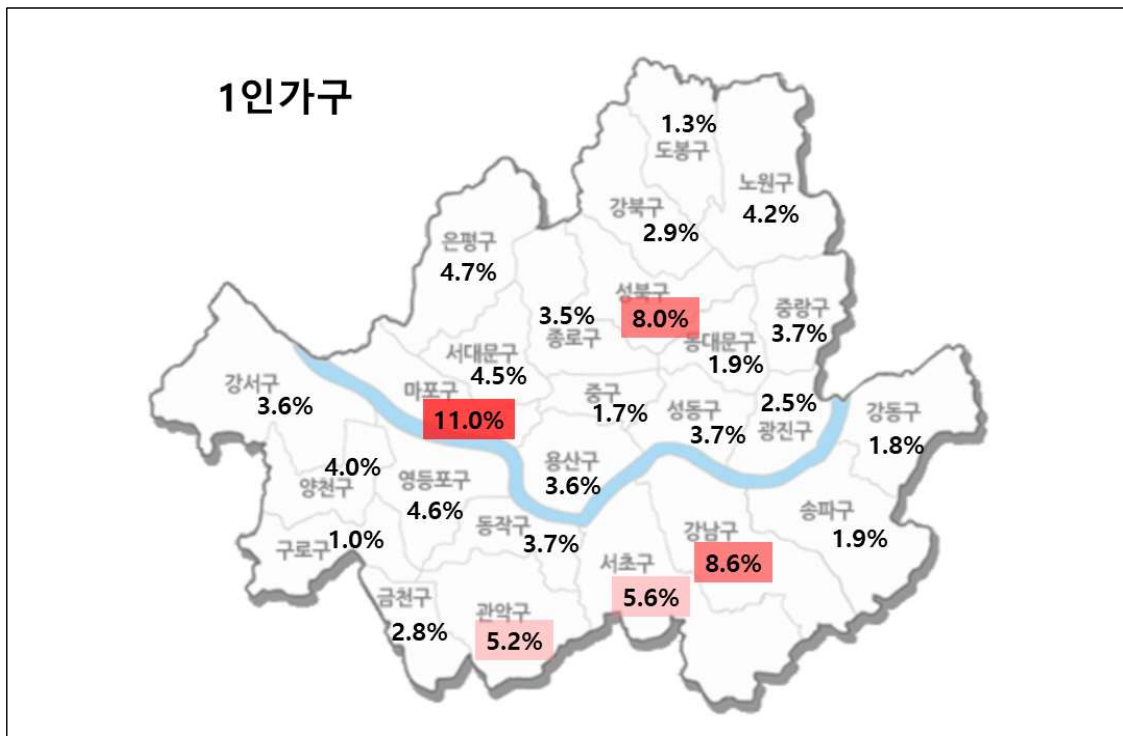
(3) 거주지 및 활동지 정보

1) 현 거주지

서울1인가구 예술인은 ‘마포구’에 가장 많이 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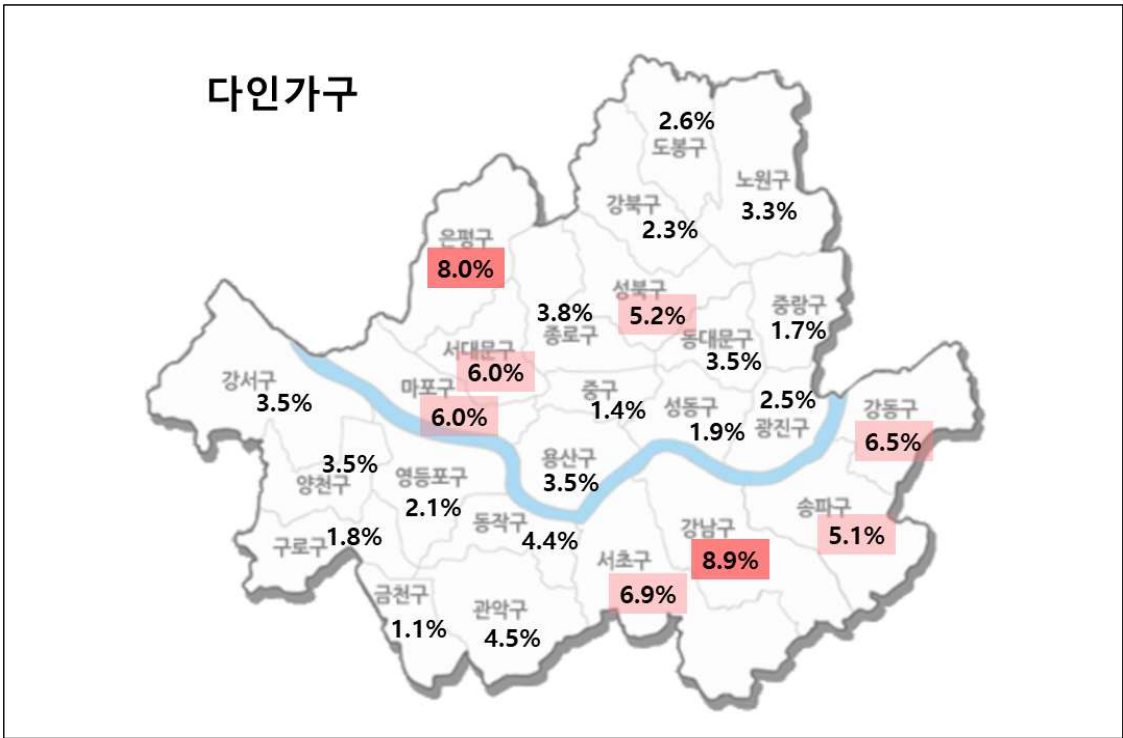
- 서울 예술인의 25개 자치구 거주지 분포를 보면, 1인가구 예술인의 거주지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마포구(11.0%)’이고, 그 다음 ‘강남구(8.6%)’, ‘성북구(8.0%)’, ‘서초구(5.6%)’, ‘관악구(5.2%)’ 순임
- 반면, 1인가구 예술인의 거주지 비율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구로구(1.0%)’이며, 1%대의 비율을 가진 자치구는 ‘도봉구(1.3%)’, ‘중구(1.7%)’, ‘강동구(1.8%)’, ‘송파구(1.9%)’, ‘동대문구(1.9%)’임

[그림] 서울 예술인 현거주지 지역 분포: 1인가구



- 1인가구 예술인 거주지 분포와 비교하기 위해 다인가구의 25개 자치구 거주지 분포를 보면,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강남구(8.9%)’이고, 그 다음 ‘은평구(8.0%)’, ‘서초구(6.9%)’, ‘강동구(6.5%)’ 순임
- 반면, 다인가구 예술인의 거주지 비율이 1%대인 자치구는 ‘금천구(1.1%)’, ‘중구(1.4%)’, ‘중랑구(1.7%)’, ‘구로구(1.8%)’, ‘성동구(1.9%)’임

[그림] 서울 예술인 현거주지 지역 분포: 다인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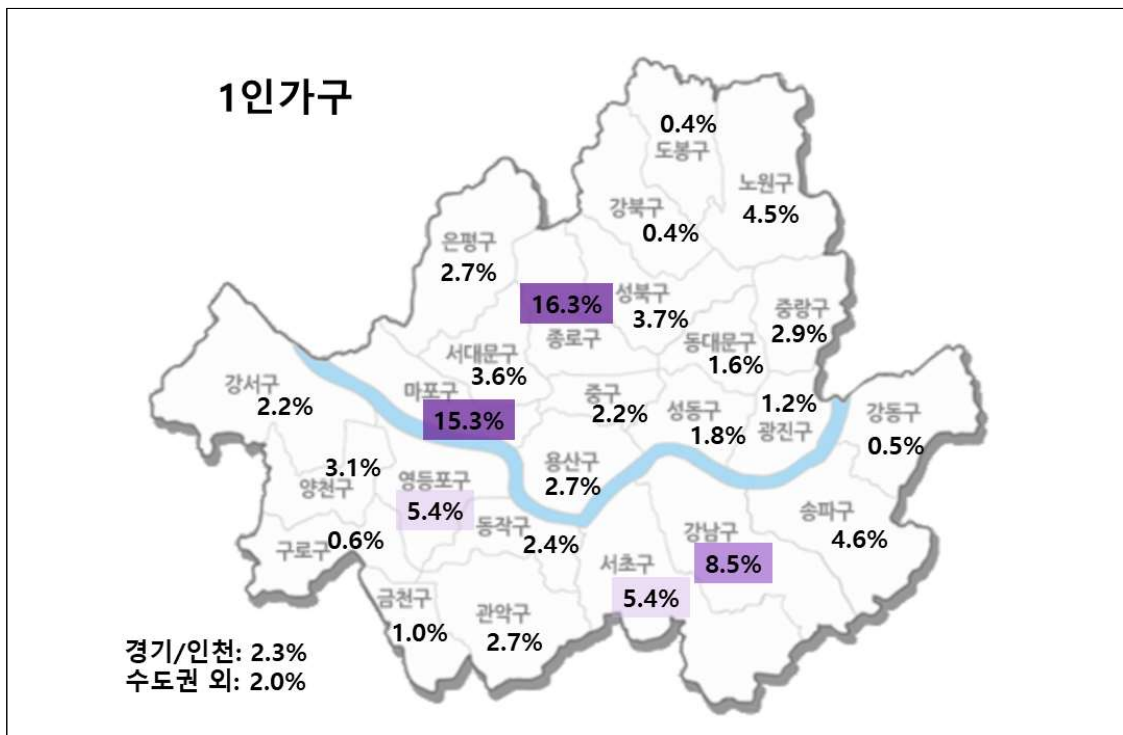


2) 주 예술활동 수행지역

1인가구 예술인 주 활동지역은 ‘종로구’와 ‘마포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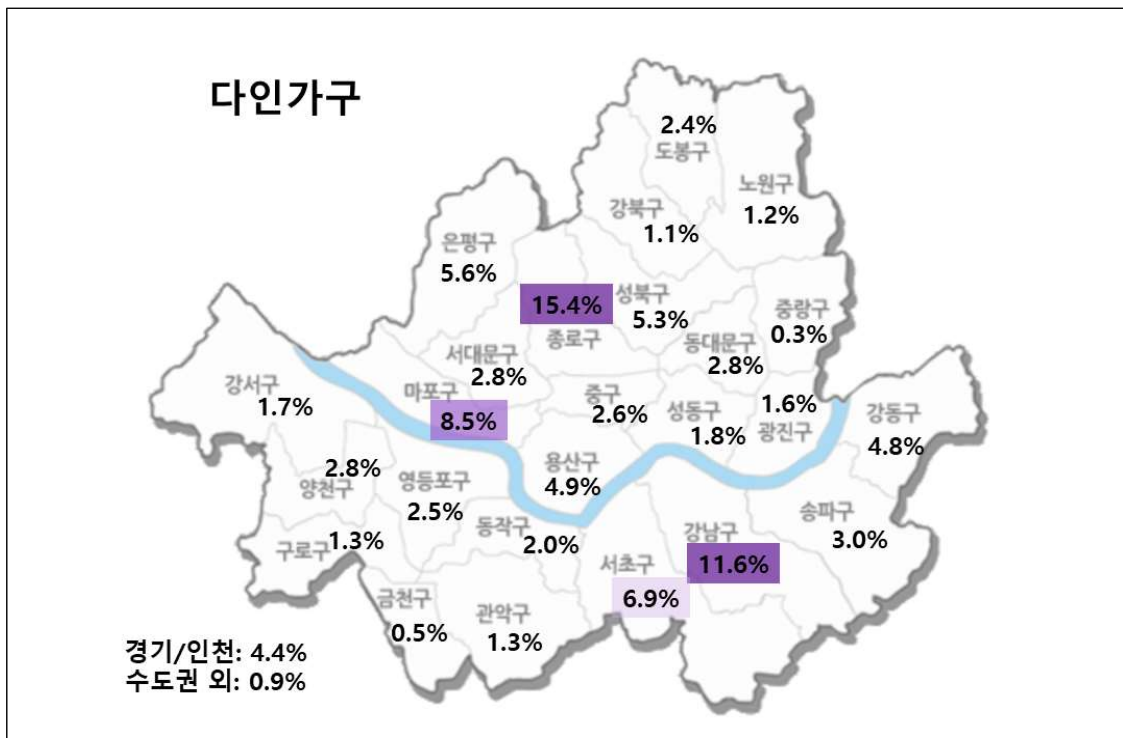
- 서울 예술인의 25개 자치구 예술활동 수행지역 분포를 보면, 1인가구 예술인의 활동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종로구(16.3%)’이고, 그 다음 ‘마포구(15.3%)’, ‘강남구(8.5%)’, ‘서초구(5.4%)’, ‘영등포구(5.4%)’ 순임
- 반면, 1인가구 예술인의 활동 비율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강북구(0.4%)’, ‘도봉구(0.4%)’, ‘강동구(0.5%)’, ‘구로구(0.6%)’임
 - 1인가구의 서울지역 외 활동 비율을 보면, 경기/인천 2.3%이고, 수도권 외가 2.0%임

[그림] 서울 예술인 예술활동 지역 분포: 1인가구



- 1인가구 예술인 활동지역 분포와 비교하기 위해 다인가구의 25개 자치구 활동지역 분포를 보면,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종로구(15.4%)’이고, 그 다음 ‘강남구(11.6%)’, ‘마포구(8.5%)’, ‘서초구(6.9%)’ 순임
- 반면, 다인가구 예술인의 활동 비율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중랑구(0.3%)’, ‘금천구(0.5%)’임
 - 다만, 다인가구의 경기/인천 활동 비율은 4.4%로 1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그림] 서울 예술인 예술활동 지역 분포: 다인가구



4.2. 서울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1인 vs 다인가구(2017년 기준)

(1) 예술활동 및 내용

1) 활동분야

1인가구는 대중음악과 연극분야에서 활동이 많은 편

- 서울 예술인의 주 활동분야에서 보면,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중음악(21.0%)’과 ‘연극(15.1%)’분야의 비율이 높음
- 1인가구의 활동분야 순위는 ‘대중음악(21.0%)’, ‘연극(15.1%)’, ‘미술(14.9%)’ 순임. 반면, 다인가구는 ‘미술(22.4%)’, ‘대중음악(15.1%)’, ‘연극(12.3%)’ 순임
 - 가구구성별 활동분야 비율을 비교했을 때,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형예술(20.8%)’분야에서 비율이 낮은 편임

[표] 서울 예술인 문화예술분야 분포

분야		서울1인가구 예술인		서울다인가구 예술인	
음악예술	음악	7.3%	37.0%	6.2%	31.0%
	국악	8.7%		9.7%	
	대중음악	21.0%		15.1%	
연행예술	연극	15.1%	33.5%	12.3%	28.5%
	영화	8.4%		5.8%	
	방송연예	6.4%		5.8%	
	무용	3.6%		4.6%	
조형예술	미술	14.9%	20.8%	22.4%	30.8%
	공예	2.4%		1.4%	
	사진	2.4%		3.8%	
	건축	1.1%		3.2%	
문학예술	문학	5.1%	6.5%	6.7%	2.9%
	만화	1.4%		1.2%	
기타	기타	2.2%	2.2%	1.8%	1.8%
전체		100%		100%	

2) 종사 직업

1인가구는 음악예술인과 연행예술인이 많은 편

- 서울 예술인의 종사 직업에서 보면,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음악예술인(36.7%)’과 ‘연행예술인(20.5%)’ 비율이 높음
- 1인가구의 종사 직업 순위는 ‘음악예술인(36.7%)’, ‘연행예술인(20.5%)’, ‘조형예술인(15.1%)’ 순임. 반면, 다인가구는 ‘음악예술인(28.2%)’, ‘조형예술인(25.8%)’, ‘연행예술인(15.3%)’ 순임
 - 가구구성별 종사 직업 비율을 비교했을 때,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형예술인(15.1%)’의 비율이 낮은 편임

[표] 서울 예술인 종사 직업 분포

직업		서울1인가구 예술인		서울다인가구 예술인	
창작인 그룹	음악예술인	36.7%	83.8%	28.2%	80.4%
	연행예술인	20.5%		15.3%	
	조형예술인	15.1%		25.8%	
	문학예술인	11.5%		11.1%	
기획인 그룹	기획제작자	11.6%	13.0%	12.5%	15.8%
	기획관리자	1.4%		3.3%	
기타	기타	3.2%	3.2%	3.8%	3.8%
전체		100%		100%	

3) 경력과 연령층

1인가구는 경력 짧은 편이고 청년층

- 서울 예술인의 경력을 보면,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10년 미만(30.5%)’과 ‘10년~20년 미만(32.3%)’ 경력자 비율이 높고, 연령층에서도 보면, 청년 비율이 ‘남성(47.0%)’과 ‘여성(40.6%)’ 모두 높음
- 연령층에서 특징적인 것은, 1인가구 남성은 다인가구에 비해 ‘청년층(47.0%)’이 월등히 많고 ‘원로층(12.7%)’은 매우 적은 편인데 반해, 1인가구 여성은 ‘원로층(22.1%)’ 비율이 다인가구보다 오히려 많음

[표] 서울 예술인 경력 분포

구분	서울1인가구 예술인	서울다인가구 예술인
10년 미만	30.5%	22.1%
10년~20년 미만	32.3%	29.3%
20년~30년 미만	21.6%	22.7%
30년~40년 미만	8.0%	10.3%
40년 이상	7.6%	15.6%
전체	100%	100%

[표] 서울 예술인 성별에 따른 연령층 분포

연령층 \ 성별	서울1인가구 예술인		서울다인가구 예술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청년층 (~39세)	47.0%	40.6%	19.9%	33.4%
중장년층 (40~59세)	40.3%	37.3%	41.6%	45.3%
원로층 (60세~)	12.7%	22.1%	38.5%	21.3%
전체	100%	100%	100%	100%

4) 경력단절⁶⁾ 경험

1인가구 10명 중 3명 경력단절, 예술활동 수입 부족이 주 이유

- 서울 예술인 1인가구 33.8%가 경력단절을 평균 3.4회 경험했고, 단절기간은 평균 2.2년이며, 예술활동으로 인한 수입 부족(79.3%)이 주된 이유임
- 1인가구 경력단절 경험 '있음' 응답자 중 남성은 60.5%로 여성보다 많고, 경력단절 주된 이유 중 '출산/육아'는 응답자는 0명임
 - 1인가구의 경력은 다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편인데, 경력단절 횟수는 오히려 3.4회로 더 많음

[표] 서울 예술인 경력단절 경험

구분		서울1인가구 예술인	서울다인가구 예술인
경력단절 경험	있음	33.8%	26.9%
	없음	66.2%	73.1%
전체		100%	100%
경력단절 경험 '있음' 응답자 성별	남성	60.5%	59.8%
	여성	39.5%	40.2%
전체		100%	100%
경력단절 주 이유	학업	3.0%	6.2%
	출산/육아	0.0%	6.3%
	질병	6.4%	6.5%
	예술활동 수입 부족	79.3%	68.8%
	기타	11.3%	12.2%
전체		100%	100%
경력단절 횟수 평균		3.4회	3.0회
경력단절 기간 평균		2.2년	2.4년

6) 경력단절: 예술계 입문 이후 1년 이상 예술활동을 포기한 상태에서 다른 직업에 종사하거나 무직 상태에 있었던 경험

5) 입문경로와 예술작품발표수

1인가구는 대회 등의 공식 경쟁을 통한 입문에 약한 편

- 서울 예술인은 대체로 ‘단체 및 기관에 참여하거나 소속(1인가구 62.7%, 다인가구 61.5%)’되는 형태로 입문하며, 예술작품발표수 평균은 1인가구 (6.6회)가 다인가구(8.2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음
- 입문경로에서 특징적인 것은, 다인가구에 비해 1인가구에서는 ‘대회 등의 공식 경쟁을 통한 선발(18.8%)’ 비율이 낮은 편임
 - 예술작품발표수에서는 1인가구가 ‘5회 미만’이 64.4%로 높은 편이고, ‘10회 이상’에서부터는 다인가구 비율(‘10회~20회 이상’ 18.2%, ‘20회 이상’ 11.1%)이 높음

[표] 서울 예술인 입문경로

구분	서울1인가구 예술인	서울다인가구 예술인
단체 및 기관에 참여하거나 소속	62.7%	61.5%
대회 등의 공식 경쟁을 통한 선발	18.8%	21.5%
개인의 의지로 자유롭게 활동	18.5%	17.0%
전체	100%	100%

[표] 서울 예술인 2017년 예술작품발표수 및 평균 발표수

구분	서울1인가구 예술인	서울다인가구 예술인
5회 미만	64.4%	52.6%
5회~10회 미만	19.0%	18.1%
10회~20회 미만	7.6%	18.2%
20회 이상	9.0%	11.1%
전체	100%	100%
평균 예술작품발표수	6.6회	8.2회

6) 자격증/저작권 보유 여부와 기타 경험

1인가구 10명 중 1명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3명은 저작(인접)권 보유

- 서울 예술인의 자격증/저작권 보유 여부와 기타 경험에서는 1인가구와 다인가구 간에 큰 차이가 보이지는 않음
- 다만, 국가공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보유자는 다인가구에서, 저작(인접)권 보유자는 1인가구에서 그 비율이 조금 더 높았음
 - 기타 경험에서는 외국 활동과 자원봉사(재능기부) 활동에서 다인가구가 1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험이 많은 편임

[표] 서울 예술인 자격증/저작권 보유 여부와 기타 경험

구분		서울1인가구 예술인	서울다인가구 예술인
국가공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있음	9.4%	12.8%
	없음	90.6%	87.2%
전체		100%	100%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있음	32.0%	27.3%
	없음	68.0%	72.7%
전체		100%	100%
외국에서의 예술활동 경험	있음	26.7%	30.1%
	없음	73.3%	69.9%
전체		100%	100%
문화예술교육 활동 종사 경험	있음	36.3%	36.1%
	없음	63.7%	63.9%
전체		100%	100%
예술분야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 경험	있음	54.9%	59.9%
	없음	45.1%	40.1%
전체		100%	100%

7) 개인창작공간

1인가구의 개인창작공간은 집안에 있으며 주로 월세임대

- 서울 예술인의 개인창작공간을 보면,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인창작공간이 없는 경우가 52.5%로 절반 이상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집안(29.3%)’에 있는 경우가 많고, ‘월세임대(61.0%)’가 많음
- 반면, 다인가구는 1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인창작공간이 ‘집밖(33.8%)’인 경우가 많고, ‘자가(34.4%)’가 많음

[표] 서울 예술인 개인창작공간 보유 여부

구분		서울1인가구 예술인	서울다인가구 예술인
개인창작공간 있음	집안(거주공간)에 공간이 있음	29.3%	19.8%
	집밖(거주공간과 분리)에 별도로 있음	18.2%	33.8%
개인창작공간 없음		52.5%	46.4%
전체		100%	100%

[표] 서울 예술인 개인창작공간 소유 형태

구분	서울1인가구 예술인	서울다인가구 예술인
자가	17.2%	34.4%
전세임대	15.3%	10.3%
월세임대	61.0%	49.2%
무상임대	6.5%	6.1%
전체	100%	100%

(2) 고용형태 및 복지

1) 전업 및 프리랜서 여부

1인가구 10명 중 6명은 전업, 8명은 프리랜서

- 서울 예술인의 전업 종사자는 1인가구는 60.8%, 다인가구는 54.0%이고, 프리랜서는 1인가구는 83.2%, 다인가구는 69.8%임
- 전업/겸업 고용형태를 보면,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기간제/계약직/임시직(29.8%)’, ‘일용직(10.4%)’, ‘파트타임/시간제(13.2%)’ 비율이 높은 편이며, 다인가구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11.2%)’, ‘1인 사업자(43.8%)’, ‘정규직(10.5%)’ 비율이 높음

[표] 서울 예술인 전업 여부 및 고용형태

구분		서울1인가구 예술인	서울다인가구 예술인
전업 여부	전업	60.8%	54.0%
	겸업	39.2%	46.0%
전체		100%	100%
전업/겸업 고용형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3.4%	11.2%
	1인 사업자	35.7%	43.8%
	정규직	7.5%	10.5%
	기간제/계약직/임시직	29.8%	23.5%
	일용직	10.4%	3.8%
	파트타임/시간제	13.2%	7.2%
전체		100%	100%
프리랜서 여부	프리랜서	83.2%	69.8%
	프리랜서 아님	16.8%	30.2%
전체		100%	100%

2) 계약 건수 및 내용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계약건수와 계약금액이 적은 편

- 서울 예술인의 예술활동 관련 계약 체결을 보면,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각 계약건수에서 약 1건씩(평균 0.8건) 적은 편이고, 계약금액도 83만원 더 적음
- 1인가구의 전체 계약 건수는 4.7건, 서면 계약 건수는 3.0건, 표준 계약 건수는 2.7건, 성실이행 계약건수는 4.0건으로 다인가구에 비해 약 1건씩 적은 편임
 - 1인가구의 건별 계약기간은 4개월로 다인가구(3.9개월)에 비해 조금 긴 편이나, 건별 계약금액은 382만원으로 다인가구(465만원)에 비해 적음
 - 부당계약 경험 비율은 1인가구 10.0%, 다인가구 12.1%로 전체 계약 건수가 많은 다인가구에서 조금 더 높음

[표] 서울 예술인 2017년 계약 건수 및 내용

구분	서울1인가구 예술인	서울다인가구 예술인	차이
전체 계약 건수	4.7건	5.5건	-0.8건
서면 계약 건수	3.0건	4.1건	-1.1건
표준 계약 건수	2.7건	3.4건	-0.7건
성실이행 계약 건수	4.0건	4.5건	-0.5건
건별 계약기간 평균	1건당 4.0개월	1건당 3.9개월	+0.1개월
건별 계약금액 평균	1건당 382만원	1건당 465만원	-83만원
부당계약 경험 비율	10.0%	12.1%	

3) 4대보험 가입 여부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4대보험 가입률 낮은 편

- 서울 예술인의 4대보험 가입 여부를 보면, 모든 보험(공적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서 다인가구보다 가입자 비율이 낮음
- 1인가구의 공적연금 가입자는 43.3%, 건강보험 가입자는 85.4%, 산재보험 가입자는 25.4%, 고용보험 가입자는 22.6%임

[표] 서울 예술인 4대보험 가입 여부

구분			서울1인가구 예술인	서울다인가구 예술인
4대 보험 가입 여부	공적연금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있음	43.3%	58.4%
		없음	56.7%	41.6%
	전체		100%	100%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 의료급여1/2종)	있음	85.4%	90.1%
		없음	14.6%	9.9%
	전체		100%	100%
	산재보험 (직장/본인가입)	있음	25.4%	39.3%
		없음	74.6%	60.7%
	전체		100%	100%
	고용보험	있음	22.6%	27.2%
		없음	77.4%	72.8%
	전체		100%	100%

4) 실업급여

1인가구 100명 중 3명 실업급여 수혜자, 월평균 90만원

- 서울 예술인 1인가구 3.4%가 실업급여 수혜자이고, 평균 2.4회 받았고, 월평균 90만원을 받음
- 1인가구 실업급여 수혜 ‘있음’ 응답자 중 남성은 52.0%로 여성보다 조금 많으나, 다인가구는 오히려 여성이 56.8%로 더 많음
 - 1인가구의 실업급여 수혜 횟수(2.4회)와 금액(월90만원)은 다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임

[표] 서울 예술인 실업급여 수혜

구분		서울1인가구 예술인	서울다인가구 예술인
실업급여 수혜 여부	있음	3.4%	3.6%
	없음	96.6%	96.4%
전체		100%	100%
실업급여 수혜 ‘있음’ 응답자 성별	남성	52.0%	43.2%
	여성	48.0%	56.8%
전체		100%	100%
수혜 횟수 평균		2.4회	1.9회
수혜 금액 평균		월90만원	월88만원

5) 업무상 상해 경험

1인가구 100명 중 8명 업무상 상해 경험자

- 서울 예술인 1인가구 8.2%가 업무상 상해 경험자이고, 보상받지 못한 경우가 74.0%임
- 1인가구 업무상 상해 경험 ‘있음’ 응답자 중 남성은 52.5%로 여성보다 조금 많으나, 다인가구는 오히려 여성이 53.8%로 더 많음
 - 1인가구의 상해로 인한 보상 방식에서 보면, ‘보상받지 못함’이 74.0%, ‘고용주 측의 보험으로 산재처리’가 22.0%임

[표] 서울 예술인 업무상 상해 경험

구분		서울1인가구 예술인	서울다인가구 예술인
업무상 상해 경험	있음	8.2%	7.2%
	없음	91.8%	92.8%
전체		100%	100%
업무상 상해 경험 ‘있음’ 응답자 성별	남성	52.5%	46.2%
	여성	47.5%	53.8%
전체		100%	100%
상해로 인한 피해의 보상 방식	보상받지 못함 (본인 비용 처리)	74.0%	84.8%
	고용주 측의 개인 비용으로 보상	0.0%	5.5%
	고용주 측의 보험으로 보상(산재 처리)	22.0%	6.4%
	기타	4.0%	3.3%
전체		100%	100%

(3) 수입과 지출

1) 수입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수입 적고, 예술활동 수입 의존도 높음

- 서울 예술인 2017년 수입에서 보면, 가구 총수입 및 예술활동 관련 총수입 모두에서 1인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적음. 한편, 1인가구는 총수입 중 예술활동 관련 수입 비율이 80%이상임
- 가구 총수입 평균을 보면, 1인가구는 3,155만원, 다인가구는 4,674만원으로, 1인가구가 1,519만원 더 적고, 중앙값에서도 1인가구(2,000만원)는 다인가구보다 1천만원 더 적음
 - 예술활동 관련 총수입 평균에서도 1인가구는 2,531만원, 다인가구는 2,602만원으로 1인가구가 71만원 더 적고, 중앙값에서도 1인가구(1,200만원)는 다인가구보다 3백만원 더 적음
 - 총수입 중 예술활동 관련 수입 비율이 1인가구는 80.2%, 다인가구는 55.7%임

[표] 서울 예술인 가구 및 예술활동 관련 총수입

구분		서울1인가구 예술인	서울다인가구 예술인
2017년 가구 총수입	평균	3,155만원	4,674만원
	중앙값	2,000만원	3,000만원
	최소값	600만원	1,000만원
	최대값	4억원	4억2,800만원
2017년 예술활동 관련 총수입	평균	2,531만원	2,602만원
	중앙값	1,200만원	1,500만원
	최소값	0원	0원
	최대값	4억원	4억2,800만원
총수입 중 예술활동 관련 수입 비율		80.2%	55.7%

[서울1인가구 예술인 현황조사]

□ 서울 예술인 2017년 예술활동 관련 총수입 응답자 분포를 보면, 2천만원
을 기준으로 이보다 적을 때는 1인가구 비율이 높고, 이보다 많을 때는
다인가구 비율이 높음

- 응답자 분포를 보면, 2천만원 미만에서 1인가구 비율이
65.9%(14.3%+26.9%+24.7%)로 다인가구 비율(60.5%)보다 높고,
2천만원 이상에서는 34.1%(13.4%+20.7%)로 다인가구 비율(39.5%)
보다 낮음

[표] 예술활동 관련 총수입 응답자 분포

2017년 예술활동 관련 총수입 구분	서울1인가구 예술인	서울다인가구 예술인
1백만원 미만	14.3%	16.9%
1백만원~1천만원 미만	26.9%	24.0%
1천만원 ~ 2천만원 미만	24.7%	19.6%
2천만원 ~ 3천만원 미만	13.4%	12.4%
3천만원 이상	20.7%	27.1%
전체	100%	100%

2) 예술활동 수입원

1인가구의 주 수입원은 출연료, 급여, 작품 판매료 순

- 서울 예술인 예술활동 주된 수입원을 보면, 1인가구의 경우에는 출연료(32.0%)가 가장 많은 반면, 다인가구는 급여(27.6%)가 가장 많음
- 1인가구의 수입원 순위는 ‘출연료(32.0%)’, ‘급여(28.0%)’, ‘작품 판매료(13.8%)’ 순임. 반면, 다인가구는 ‘급여(27.5%)’, ‘출연료(25.7%)’, ‘작품 판매료(18.9%)’ 순임

[표] 서울 예술인 예술활동 주된 수입원

구분	서울1인가구 예술인	서울다인가구 예술인
원고료	6.3%	8.4%
출연료	32.0%	25.7%
작품 판매료	13.8%	18.9%
저작(인접)권 수입	10.7%	9.8%
급여	28.0%	27.6%
보조금 및 지원금	9.2%	9.6%
전체	100%	100%

3) 지출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지출 적고, 예술활동 지출비율 높음

- 서울 예술인 2017년 지출에서 보면, 가구 총지출 및 예술활동 관련 총지출 모두에서 1인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적음. 한편, 1인가구는 총지출 중 예술활동 관련 지출 비율이 30%이상임
- 가구 총지출 평균을 보면, 1인가구는 2,425만원, 다인가구는 3,840만원으로, 1인가구가 1,415만원 더 적고, 중앙값에서도 1인가구(2,000만원)는 다인가구보다 1천만원 더 적음
 - 예술활동 관련 총지출 평균에서도 1인가구는 798만원, 다인가구는 845만원으로 1인가구가 47만원 더 적고, 중앙값에서도 1인가구(320만원)는 다인가구보다 140만원 더 적음
 - 총지출 중 예술활동 관련 지출 비율이 1인가구는 32.9%, 다인가구는 22.0%임

[표] 서울 예술인 가구 및 예술활동 관련 총지출

구분		서울1인가구 예술인	서울다인가구 예술인
2017년 가구 총지출	평균	2,425만원	3,840만원
	중앙값	2,000만원	3,000만원
	최소값	600만원	1,000만원
	최대값	1억1,000만원	2억8,700만원
2017년 예술활동 관련 총지출	평균	798만원	845만원
	중앙값	320만원	460만원
	최소값	0원	0원
	최대값	1억원	2억4,000만원
총지출 중 예술활동 관련 지출 비율		32.9%	22.0%

[서울1인가구 예술인 현황조사]

□ 서울 예술인 2017년 예술활동 관련 총지출 응답자 분포를 보면, 5백만원을 기준으로 이보다 적을 때는 1인가구 비율이 높고, 이보다 많을 때는 다인가구 비율이 높음

- 응답자 분포를 보면, 5백만원 미만에서 1인가구 비율이 59.6%(34.2%+25.4%)로 다인가구 비율(50.3%)보다 높고, 5백만원 이상에서는 40.4%(20.2%+13.9%+6.3%)로 다인가구 비율(49.7%)보다 낮음

[표] 예술활동 관련 총지출 응답자 분포

2017년 예술활동 관련 총지출 구분	서울1인가구 예술인	서울다인가구 예술인
2백만원 미만	34.2%	30.0%
2백만원 ~ 5백만원 미만	25.4%	20.3%
5백만원 ~ 1천만원 미만	20.2%	20.5%
1천만원 ~ 3천만원 미만	13.9%	22.6%
3천만원 이상	6.3%	6.6%
전체	100%	100%

4.3. 서울1인가구 예술인 FGI 분석결과

(1) FGI 결과로 본 1인가구 성향 종합

불안정한 생활, 커뮤니티의 부재와 비현실적인 지원책으로 어려움을 겪음

- 불규칙적이고 불안정한 노동형태와 소득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움
 - 1인가구 예술인은 잦은 근로환경변화와 계약조건 변화 하에서 제대로 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불안한 여건 속에서 활동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생계를 위한 창작 외 활동까지 힘들어진 상태임
 - 한편, 예술인 특성상 문화예술 활동비에는 다인가구보다 지출이 자유로움
-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과 협력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필요함
 - 주거공간 및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협업을 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고자 함
 - 1인가구 예술인은 직업 특성상 고립·격리되기 쉬워 정기적인 커뮤니티 형성이 필요함
 - 젊은 예술인들은 주로 SNS를 기반으로 소통함
- 생활패턴의 붕괴와 불규칙적인 식생활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노후대책이 미비하며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함
 - 좋지 않은 건강상태로 여러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고, 창작을 우선하여 건강관리에 소홀한 경우가 많음
 - 공동작업을 할 때도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지인과의 만남이나 반려동물 등 각기 다른 방식으로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함
 - 구체적인 노후대책의 미비로 불안함을 느낌
- 경제적 이유로 주거공간과 창작공간이 결합되어 있고, 예술 활동 지속을 위해 주거·창작 공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주거공간과 창작공간을 분리하고자 하는 욕구는 크나, 경제적 이유로 좌절됨. 세어하우스나 카페 이용 등의 대안을 모색하기도 함.
 - 정부 주도의 공간지원 정책을 통한 안정확보에 필요성을 크게 느낌

-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주거 안정에 대한 정책과 각 분야별 예술인의 실질에 맞는 지원정책에 수요가 높음
- 예술인 기본소득 및 4대보험 보장, 커뮤니티 형성 등을 통한 안정적인 창작 활동의 기반이 절실함
 - 예술인의 안정에 가장 필요한 지원분야는 주거·작업공간 지원임
 - 1인가구 자체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
 - 행정적 관행에 얽매어 노동자로 일하기 보다 창작자의 관점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실질에 맞는 공모사업이 필요함

(2) 4대 영역: 소득에 대한 의견

프리랜서 및 임시계약직 형태로 근무환경이 불규칙

- 1인가구 예술인의 고용형태는 예술인 대부분이 그러하듯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임시/시간제 계약직, 비정규직의 형태임
 - 관련 분야 계약직 강사의 경우, 매해 심사 혹은 면접을 통한 계약 갱신을 이뤄야 한다는 점에서 고용이 불안정함
 - 관련 분야 행사나 심사, 특강 활동을 통해 일회성 사례비로 수입을 충당하기도 함
 - 경우에 따라, 일반 사무직으로 고용되어 안정적인 고용형태를 이루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선 초과근무가 필수적인 상황임
- 1인가구 예술인의 경우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태임. 따라서 1인가구 예술인은 섭외 단계에서 정확한 보수 금액과 지불 날짜의 명시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호소함
- 1인가구 예술인은 프리랜서 특성에 의해 고정 수입이 없기 때문에 예술 활동과 관련 없는 추가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빈번함.
 -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공연계의 경우 기획되었던 공연이 취소되면서 몇 개월 동안 예술 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없는 시기가 존재하기도 하였음
- 1인가구 예술인은 월세, 공과금, 통신비, 식비 등 고정지출 비용을 제외하곤 불규칙적인 수입을 고려해 지출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함
 - 한편 1인가구 예술인은 다인가구 예술인에 비해 소비/지출을 할 수 있는 선택이 자유로운 편이기도 함. 1인가구 특성상 본인 업무나 자기계발, 관계유지와 관련된 소비/투자에 비교적 아낌없이 지출할 수 있음
 - 예술인 특성상 공연관람, 도서구매 등 문화예술 활동비를 아끼지 않는 편임

- 1인가구 예술인의 작업에 따라 근로 환경이 매번 달라지는 경향이 있음
 - 개인 작업의 경우 업무 전반의 일을 혼자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근로 환경에 신경을 못 쓰는 편이라는 의견부터 창작 시간을 잘 분배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 다양하게 존재함
- 1인가구 예술인은 예술 활동 자체가 불규칙적인데다가 코로나 19 사태까지 겹치며 경력 단절이 빈번하게 일어남
 - 다만, 여성 1인 가구의 경우 결혼과 육아로 인한 휴직에서 자유로워 여성 다인가구 예술인에 비해 경력 단절이 적은 편임

1인가구 예술인의 소득 관련 고충

“계약관계에서 음악인이 약자가 되는 관계입니다. 음악 장르는 관례처럼 계약서를 대부분 쓰지 않습니다.” (여성, 30대, 음악예술인)

“공연에 따라 다르지만 공연할 때는 매일 12시간 이상 주말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 50대, 연행예술인&기획제작자)

“경제적 안정을 추구할수록 작품 활동에 제약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남성, 40대, 문학예술인)

“시기마다 수입이 상당히 유동적인데다가, 다른 1인가구와 마찬가지로 고정 지출을 혼자 부담하다보니 1인당 지출 비용이 다인가구에 비해 높습니다.” (남성, 40대, 문학예술인)

(3) 4대 영역: 관계에 대한 의견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 커뮤니티가 필요

- 1인가구 예술인은 공통적으로 네트워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커뮤니티 참여 활동이 비교적 자유로움
 - 예술인 주거 공간이나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 간의 공동체 형성을 통해 공동체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나가기도 함
 - 네트워크 활동이 중요하긴 하나 예술인의 특성으로 인해 네트워크가 그다지 탄탄하지 않다는 특성이 있음
 - 공연 예술인들은 공연을 위한 협업으로 인해 커뮤니티의 중요성이 보다 큰 편임
- 1인가구 예술인은 협업을 할 수 있는 의지와 동기가 비교적 부족하여, 불필요한 공동체 활동을 굳이 하지 않고 혼자 작업하는 것을 선호하기도 함
- 1인가구 예술인은 각기 다른 예술 영역의 사람들과의 협업이 필요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마련해야한다고 설명함
 - 1인가구 예술가 커뮤니티는 대부분 비슷한 영역, 직종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되므로 서로 다른 장르의 예술인끼리의 네트워크 형성이 어렵다는 점이 존재함
 - 따라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각 분야의 예술인 스터디와 그것의 구체적 지원이 필요함
- 1인가구 예술인은 지원사업 선정 후 결과보고를 공유하는 네트워킹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함
 - “지원사업의 결과를 보고하는 네트워킹의 경우, 단순히 결과보고를 평가하는 자리가 아닌, 예술가들이 모두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을 진정으로 배려하고 대우하는 형태로 구성해야 하고, 서로 존중받는 자리이어야 한다.”(여성, 40대, 조형예술인)

- 1인가구 예술인은 예술인의 직업 특성 상 고립·격리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패턴화되어 있는 모임이나 커뮤니티 형태가 필요하다고 호소함
 - 1인가구 예술인은 가족이나 예술 활동과 관련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나 공동체 형성이 어려울 수 있고, 지역 공동체 내에서의 역할이 불분명하고 소외되기가 쉬움
- 1인가구 예술인은 주로 SNS 커뮤니티로 소통하는 특징이 있음
 - 젊은 예술인들은 주로 사이버 공간을 통해 다양한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있음

1인가구 예술인의 관계 관련 고충

“어떤 지점에 있어서는 좀 더 다양한 분야와 협업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그에 따르는 위험성도 존재한다. 어떤 사람을 만날지, 타 장르와의 차이성에 대한 접근의 방식 등에 따라 결국은 포기해버리는 작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보면 움츠러들게 되는 경향도 나타난다.” (여성, 40대, 연행예술인)

“자치구별로 사업하지 말고 (ex. 은평구1인가구지원제도 등) 지역을 넘어선 주제별 사업 및 모임/커뮤니티가 있었으면 좋겠다. 당장 세무 문제와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스터디를 하고 싶은데 그런 모임을 찾기가 힘들다” (여성, 30대, 조형예술인)

(4) 4대 영역: 안전에 대한 의견

작업에 따른 생활패턴 붕괴와 낮은 식생활 만족도

- 1인가구 예술인은 대체적으로 외로운 편이라는 응답이 많았지만, 혼자 있는 시간과 외로움을 즐기고, 외로움이 과도해졌을 때 지인과의 만남을 통해 해소한다는 답변 또한 존재했음
 - 1인가구 예술인은 다인가구 예술인에 비해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요인에 취약하여, 반려동물이나 동료 예술인들과의 술자리에 집착하게 되는 경향이 있음
 - 대개 기획자의 경우, 위치상 공동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술 활동 중에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함
 - “외로움이 너무 많은 편이다. 특히 업무를 진행해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감정이다. 그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관계 속에서 충돌이 생긴다.” (여성, 30대, 기획제작·관리자)
- 1인가구 예술인은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 발생 시 자신이 의존하거나 도움을 청할 이가 없는 경우가 많고, 이는 고독사와 관련하여 장년층일수록 더 심각한 문제로 작용함
 - 1인가구 예술인은 경우에 따라, 불온전한 고용 형태로 인한 잦은 음주와 불규칙한 생활로 성인병에 노출되어 있고, 만성적인 운동 부족이 시달리기도 함
 - 1인가구 예술인은 안전사고, 폭력, 폭행 등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문단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응답함
- 1인가구 예술인은 밤샘 작업이 빈번하여 평범한 하루 사이클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건강관리에 소홀한 편임
 - 규칙적인 생활을 노력 해봐도, 작품 활동에 집중하다 보면 생활 패턴이 다시 붕괴되곤 함

- 1인가구 예술인의 식생활은 예술 활동의 불규칙함으로 인해 집에서 끼니를 간단하게 해결하거나, 배달음식/외부 음식을 찾는 경우가 지배적임
 - 1인가구는 식자재 관리가 어렵고, 요리 환경이 여의치 못하다보니 노력 대비 만족도가 낮은 편임
 - 한편, 타인의 식생활에 함께하지 않아도 되어, 건강하고 나에게 맞는 식생활을 찾으려 노력한다는 응답 또한 존재함
- 1인가구 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지배적이며, 낮은 소득에 따른 건강의료보험료 부담을 공통적으로 호소함
 - 1인가구 예술인은 경우에 따라, 산재처리가 가능하다고 해도 신청 절차와 서류 작업이 복잡하고 행정처리가 너무 많아 병원비를 사비로 충당하기도 함
- 1인가구 예술인은 현재 생활의 어려움이나, 시간적 여유의 부재 등으로 간단한 보험이나 저축을 제외하곤 구체적인 노후대책을 세워두지 못한 상태임

1인가구 예술인의 안전 관련 고충

“건강한 음식을 챙겨먹고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생활을 영위하려면 업무의 질이 낮아지는 것이 확실하다. 필자의 경우 업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식생활을 조금 포기했다.” (여성, 30대, 기획제작·관리자)

“나는 여성 연극 조연출인데, 여성이면서 조연출이라는 이유만으로 겪는 많은 부정적인 사건들이 있고, 이를 1인가구이다보니 혼자서 다 견뎌야 하는 상황이다.” (여성, 20대, 연행예술인&기획관리자)

“우울증이 예술인들 사이에서 하나의 문화가 돼버렸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예술인들은 배고파야하고 우울해야한다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한다. ‘우울하니까 예술가이다.’ 라는 생각을 타파할 수 있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오히려 우울증을 공론화시키고 사회문제로 드러내서 치료받아야 함을 보여주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남성, 20대, 연행예술인&기획제작·관리자)

(5) 4대 영역: 공간에 대한 의견

주거·예술작업 공간의 불안정, 정책적 지원 절실

- 1인가구 예술인은 예술작업 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경제적 이유로 거주환경과 작업환경이 동일한 경우가 대다수임
 - 주거공간 외에는 카페나 연습실을 이용하기도 하고, 시각예술인의 경우 작업실을 위해 셰어하우스를 마련하기도 함
 - 한편, 문학예술인의 경우 작업공간과 주거공간이 결합된 형태에 대해 불만이 덜하다는 응답도 존재함
 - 작업의 제약을 위해 1인가구 생활을 시작한 경우도 일부 존재함

- 1인가구 예술인은 주로 원룸에 거주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경제적 이유로 주거환경이 불안정한 경우가 대다수임
 - 주거환경의 요건 중 교통 편리와 안정성, 편의공간의 접근성, 조용한 환경, 예술활동의 용이성 등을 선호함
 - 수도권외 레지던시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자신의 경력 단절 등을 감수해가며 지방에 머문 후 서울에 정착하는 비효율적인 경우가 증가한다는 응답도 존재함

- 1인가구 예술인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여부는 가시각색임. 활동의 종류로는 SNS이용, 게임과 회의 등이 있음
 - SNS를 이용하는 경우 자기표현 및 소통의 목적이 많았고, 게임과 더불어 외로움 해소를 위해 사이버 공간으로 도피하는 경우도 존재함
 -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공간의 활용이 높아짐
 - “팬데믹 이후로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수업 및 회의가 잦아졌다. 시간 단축과 물리적 거리가 먼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이 열렸다는 장점도 있으나 소통에 한계와 커리큘럼에 제한된 것이 많아졌다.”(여성, 30대, 문학예술인)

□ 1인가구 예술인은 대체로 정부 주도 공간대여 지원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함

- 정부의 현 예술작업실 및 주거공간 지원 정책은 요건 충족에 어려움이 크고,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적 허점으로 활용이 어려움
- 정부 지원정책의 홍보가 미비하여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큼
- 예술인들의 경우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의 방지를 위해 주거공간과 예술작업공간이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존재함

1인가구 예술인의 공간 관련 고충

“주거가 불안하고, 월세 부담이 크다. 주택 관련, 주거 공간 관련 정책에 소외되어 있다.” (남성, 40대, 문학예술인)

“살기 위해 유지하기 위한 집에 대한 부담을 온전히 혼자서 감당해야 하기에 외부 작업실까지 따로 만들어서 월세 같은 비용을 이중부담으로 내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 (여성, 40대, 조형예술인)

“정부의 작업실 정책은 지원 너무 받고 싶지만 지원 대상에 들어가기가 허들도 높고 너무 애매하다.” (여성, 40대, 조형예술인)

“역세권 청년주택(청년 소득 제한, (대)학생, 신혼) 신청하려고 해도 예술인은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상황이다. 예술인 마을 형태가 있긴 해도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 있다보니 의미가 없다.” (여성, 20대, 음악예술인&기획제작·관리자)

(6) 정책에 대한 의견

최소한의 소득·주거안정과 실질에 부합하는 지원책 필요

- 1인가구 예술인은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마련되기를 바람
 - 기본소득과 4대보험 보장같은 제도를 통해 생활의 안정성과 정당한 대가, 존중을 기반으로 작업하기를 원함
 - 문화공간에서 기획하는 문화관련 프로그램이나 지역과 연계한 문화예술 사업과 같이 다양한 사업을 통해 1인가구 예술인들이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1인가구 예술인은 정부가 지원하는 거주 및 작업공간을 통해 주거 안정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함
 - 기존 예술인 대상 주거지원책은 매우 적거나 미비한 실정임
 - 1인 오피스 운영 및 주거지원과 같이 1인가구 예술인에 특화된 공간 지원책이 필요함
 - 작업공간과 주거공간이 한데 모여서 예술인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수요 또한 높음
 - 주거 및 작업 공간은 1인가구 예술인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로, 공간에 대한 지원은 예술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큰 동력이 될 수 있음

- 다인가구에 비해 심리적으로 취약한 1인가구 예술인은 안정적인 심리상태와 예술활동 외연의 확장을 위해 다양한 커뮤니티와 지원책을 원함
 - 주거지역 및 활동분야를 기반으로 우울증 예방 등 심리적 고립상태를 예방하고 예술활동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커뮤니티 형성이 필요
 - “예술인에게 물고기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지원해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한 배움의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중략) 예술인이 생계활동을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여성, 30대, 조형예술인)
 - 한편, 관계맺기는 개인의 재량이라고 보는 응답도 존재

- 1인가구 자체에 집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1인가구로서 생활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1인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성이 필요함
 - 행정적인 측면에서 정신·육체적 건강관리와 노후대비 도움이 필요함
- 1인가구 예술인은 노동자가 아닌 창작자의 관점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지원·공모 사업의 예산 및 지원 구조가 비현실적이고, 특히 예산의 경우 현실적으로 기준에 맞추어 사용하고 증빙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 현실과 맞지 않는 보여주기식 지원이 아닌 각 예술 분야에 맞는 지원책이 필요함
 -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인력지원사업’ 및 ‘e나라도움시스템’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1인가구 예술인의 정책에 대한 의견

“예술인 기본소득이 지급되었으면 한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정정도의 수입이 보장되는 것만으로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남성, 50대, 연행예술인 & 기획제작자)

“장르마다 그 특성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각 장르에 맞는 공모사업 신청서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냥 고민없이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해서 공모사업 신청서를 작성하게 만든다.” (남성, 20대, 연행예술인&기획제작·관리자)

“예술인이 혼자 살게 되면 완전히 격리되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조금은 패턴화되어 있는 모임이나 커뮤니티가 있어서, 거기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면 좋겠다.” (여성, 30대, 조형예술인)

“‘예술인’을 위한 특별한 지원이나 설계보다는 1인가구, 비혼가구, 대안가족형태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성, 40대, 기획제작자)

“지원사업을 받기 위해, 예술활동을 증빙하는 과정과, 지원사업 선정 후 결과물에 대해 증빙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너무 많다.” (남성, 30대, 음악예술인)

4.4. 서울예술인 인터넷 서베이 분석결과: 1인 vs 다인가구

(1) 응답자 특성

1) 응답자 인구통계 정보

서울거주 예술인 총 710명 응답, 주로 여성/30대/동북권 거주

- 서울거주 예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총 710명이 응답함
- 인구통계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63.8%가 여성이며, 30대가 49.3%로 가장 많고 그다음 40대 22.0%이며, 거주지는 동북권이 30.0%로 가장 많고 그다음 서남권 26.9%임

[표] 응답자 인구통계: 전체 응답자

구분		응답자수(명)	비율(%)
성별	남성	257	36.2%
	여성	453	63.8%
연령	20대 ⁷⁾	120	16.9%
	30대	350	49.3%
	40대	156	22.0%
	50대	50	7.0%
	60대 이상	34	4.8%
거주지역 ⁸⁾	도심권	43	6.1%
	서북권	126	17.7%
	서남권	191	26.9%
	동남권	137	19.3%
	동북권	213	30.0%
가구원수	1인가구	314	44.2%
	다인가구	396	55.8%
전체		710	100%

7) 응답자 중 10대는 없음

8) 서울 25개 자치구를 도심권(중구, 용산구, 종로구), 서북권(마포구, 은평구, 서대문구), 서남권(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영등포구), 동남권(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동대문구, 성북구, 도봉구, 중랑구, 성동구)으로 구분함

1인가구 응답자는 314명으로 전체의 44.2% 비율

- 총 응답자 710명 중 1인가구 응답자는 314명으로 전체의 44.2% 비율임
- 1인가구 응답자는 여성이 59.9%이고, 30대가 54.8%로 절반을 넘으며 그다음 20대가 20.4%로 많고, 동북권 거주자가 36.3%로 가장 많음
 - 다인가구 응답자는, 연령대에서 30대(44.9%)가 가장 많고 그다음 40대(25.5%)이며, 서남권 거주자(29.0%)가 가장 많음
 - 1인가구 응답자를 보면, 자발적인 1인생활은 62.4%로 절반 이상이고, 1인생활 유지기간은 5년 미만이 52.6%, 10년 이상인 경우도 26.4%임

[표] 응답자 인구통계: 1인가구 vs 다인가구

구분		1인가구		다인가구	
		응답자수(명)	비율(%)	응답자수(명)	비율(%)
성별	남성	126	40.1%	131	33.1%
	여성	188	59.9%	265	66.9%
연령	20대	64	20.4%	56	14.1%
	30대	172	54.8%	178	44.9%
	40대	55	17.5%	101	25.5%
	50대	17	5.4%	33	8.3%
	60대 이상	6	1.9%	28	7.2%
거주지역	도심권	20	6.4%	23	5.8%
	서북권	54	17.2%	72	18.2%
	서남권	76	24.2%	115	29.0%
	동남권	50	15.9%	87	22.0%
	동북권	114	36.3%	99	25.0%
전체		314	100%	396	100%

[표] 1인가구 생활기간 및 유형: 1인가구 응답자

구분		응답자수(명)	비율(%)
1인생활 동기	자발적 1인가구	196	62.4%
	비자발적 1인가구	118	37.6%
1인생활 유지기간	1년 미만	26	8.3%
	1년~5년 미만	139	44.3%
	5년~10년 미만	66	21.0%
	10년 이상	83	26.4%
전체		314	100%

2) 활동분야

응답자는 조형예술과 연행예술 분야가 많음

- 활동분야의 응답자 분포를 보면, 조형예술 분야(1인가구 35.4%, 다인가구 36.9%)가 가장 많고, 그다음 연행예술 분야(1인가구 25.5%, 다인가구 20.7%)임
- 세부 분야의 응답자 분포를 보면, 1인가구 응답자는 미술(16.2%), 연극(14.3%), 예술일반(10.5%) 순이며, 다인가구 응답자는 미술(22.5%), 문학(14.6%), 연극(10.6%) 순임

[표] 활동분야 분포

분야		1인가구 응답자		다인가구 응답자	
음악예술	음악	4.8%	15.9%	5.8%	16.2%
	국악	1.9%		4.5%	
	대중음악	9.2%		5.8%	
연행예술	연극	14.3%	25.5%	10.6%	20.7%
	영화	5.7%		6.1%	
	방송연예	2.5%		0.8%	
	무용	2.9%		3.3%	
조형예술	미술	16.2%	35.4%	22.5%	36.9%
	공예	6.7%		3.5%	
	사진	9.6%		7.8%	
	건축	2.9%		3.0%	
문학예술	문학	9.9%	12.7%	14.6%	17.7%
	만화	2.9%		3.0%	
예술일반	예술일반	10.5%	10.5%	8.6%	8.6%
전체		100%		100%	

3) 종사 직업 및 경력

응답자는 조형예술인이 가장 많고, 1인가구는 상대적으로 경력 짧음

- 종사 직업의 응답자 분포를 보면, 조형예술인(1인가구 28.0%, 다인가구 30.6%)이 가장 많음
- 조형예술인 다음으로는, 1인가구 응답자는 연행예술인(18.2%)이 많고, 다인가구 응답자는 문학예술인(19.2%)이 많음

[표] 종사 직업 분포

직업		1인가구 응답자		다인가구 응답자	
창작인 그룹	음악예술인	12.7%	76.4%	15.9%	77.3%
	연행예술인	18.2%		11.6%	
	조형예술인	28.0%		30.6%	
	문학예술인	17.5%		19.2%	
기획인 그룹	기획제작자	14.0%	23.6%	11.6%	22.7%
	기획관리자	9.6%		11.1%	
전체		100%		100%	

- 응답자 예술활동 경력 분포를 보면, 1인가구 응답자는 다인가구 응답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력이 짧은 편임
- 1인가구 응답자는 ‘3년 미만’ 경력자가 26.4%인 반면, 다인가구는 14.6%임. 반면, 1인가구 ‘20년 이상’ 경력자는 6.1%인 반면, 다인가구는 12.6%임

[표] 예술활동 경력 분포

구분	1인가구 응답자	다인가구 응답자
3년 미만	26.4%	14.6%
3년~5년 미만	17.2%	16.9%
5년~10년 미만	26.8%	29.0%
10~20년 미만	23.6%	26.8%
20년 이상	6.1%	12.6%
전체	100%	100%

(2) 소득 영역 현황

1) 예술활동(본업)과 부업활동

1인가구 예술활동과 부업에 쏟는 시간 7:3, 한달 총수입 177만원

- 업(業)에 쏟는 시간을 보면, 1인가구는 예술활동(본업) 하는 시간 대 부업을 하는 시간이 7:3 비율이고, 다인가구는 6:4 비율임
- 1인가구 예술활동 시간은 주 26.6시간으로 1일로 계산하면 하루 5.3시간이고, 부업활동 시간은 13.4시간으로 하루 2.7시간임. 반면, 다인가구 예술활동 시간은 22.8시간으로 하루 4.6시간이고, 부업활동 시간은 14.5시간으로 하루 2.9시간임
 - 다만, 요즘 상황(코로나19)에서의 예술활동과 부업활동 시간을 질문하였기에, ‘요즘 일자리가 거의 없다’는 <1인가구 예술인 FGI> 내용에 기반하여 업(業)에 대한 활동시간이 적을 수 밖에 없음
 - 1인가구 예술활동 한달 근무시간은 115.6시간이며 월수입은 107만원으로, 시급은 9,260원임. 다인가구 예술활동 한달 근무시간은 99.1시간이며 월수입은 95만원으로 시급은 9,590원임⁹⁾
 - 참고로 고용노동부의 2022년 최저 시급은 9,160원임

[표] 예술활동과 부업활동 시간 및 수입

구분		1인가구 응답자	다인가구 응답자	전체 응답자 평균
일주일 평균 활동 시간	예술활동(본업)	주 26.6시간	주 22.8시간	24.5시간
	부업	주 13.4시간	주 14.5시간	14.0시간
한달 평균 수입	예술활동(본업)	월 107만원	월 95만원	100만원
	부업	월 70만원	월 76만원	73만원
	총수입	월 177만원	월 171만원	173만원

9) 1년은 52주(365일/7일)이고, 1개월의 평균 주수는 약 4.345주(52주/12개월)로, “일주일 활동시간 ×4.345”로 한달 근무시간을 계산함

2) 예술활동 수입 만족도

예술활동 수입 만족도는 오히려 다인가구에서 낮음

□ 예술활동 수입 만족도는 1인가구 1.72점, 다인가구 1.57점으로 모두 낮으나, 다인가구에서 더 낮게 나타남¹⁰⁾

- 현재 예술활동으로 얻는 수입의 만족도를 파악하고자, 응답자에게 “본업인 예술활동으로 얻는 수입은 적절하십니까?”로 질문함
- 다인가구에서는 위의 질문에 “매우 부족하다” 응답자가 54.3%로 절반 이상이 응답함

[표] 예술활동 수입 만족도

구분		1인가구 응답자	다인가구 응답자
평균 점수 ※ 5점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함		1.72점	1.57점
“예술활동으로 얻는 수입은 적절하십니까?”	매우 부족하다(1점)	49.4%	54.3%
	부족하다(2점)	36.0%	36.6%
	적절하다(3점)	9.6%	7.8%
	충분하다(4점)	3.8%	0.8%
	매우 충분하다(5점)	1.2%	0.5%
전체		100%	100%

10) 분산분석결과, P값 0.012로 유의수준 9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3) 예술활동 실제 수입과 적정 수입 비교

적정 수입과 실제 수입과의 갭은 다인가구에서 더 높음

- 1인가구 응답자의 한달 적정 수입은 254만원으로 실제 수입과는 147만원 차이가 나고, 다인가구 응답자의 한달 적정 수입은 256만원으로 실제 수입과는 161만원 차이가 남
- 예술활동 수입 수준을 파악하고자, 응답자에게 상황을 가정하여 실제 수입과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수입을 조사함. 이에, 적정 수입을 알아보고자 “귀하께서 한달 평균 몇 만원의 수입이면, 귀하의 예술활동에 대한 수입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로 질문함

[표] 예술활동 한달 수입 수준: 1인가구 응답자

구분	평균	중앙값	최소값	최대값
적정 수입	254만원	250만원	5만원	600만원
실제 수입	107만원	90만원	0원	400만원
수입 차이	147만원			

[표] 예술활동 한달 수입 수준: 다인가구 응답자

구분	평균	중앙값	최소값	최대값
적정 수입	256만원	245만원	3만원	1,000만원
실제 수입	95만원	50만원	0원	500만원
수입 차이	161만원			

(3) 관계 영역 현황

1) 업무관계 교류

1인가구는 업무관계 교류 정도가 낮고 니즈가 더 많음

- 1인가구 업무관계 교류 사람 수는 다인가구보다 적은 편이며, 더 많은 사람과 교류하고 싶어함
- 1인가구 예술활동(본업)의 교류관계는 13.4명, 부업의 교류관계는 8.8명인 반면, 다인가구 예술활동의 교류관계는 18.0명, 부업의 교류관계는 13.2명임
 - 업무관계 교류 니즈를 교류 만족도 응답률로 파악해 본 결과, “더 많은 사람과 교류하고 싶다” 응답자 비율이 1인가구는 66.4%, 다인가구는 57.3%임

[표] 업무관계로 연결된 사람과의 교류

구분		1인가구 응답자	다인가구 응답자	전체
“현재 예술활동을 위해 교류하는 사람 수는?”	평균	13.4명	18.0명	15.7명
	중앙값	5명	8명	6명
	최소값	0명	0명	0명
	최대값	300명	300명	300명
“현재 부업으로 교류하는 사람 수는?”	평균	8.8명	13.2명	11.0명
	중앙값	3명	5명	5명
	최소값	0명	0명	0명
	최대값	300명	200명	300명

[표] 업무관계 교류 만족도

구분	1인가구 응답자	다인가구 응답자
“더 많은 사람과 교류하고 싶다.”	66.4%	57.3%
“현재의 교류 정도면 적절하다.”	25.0%	34.3%
“현재 이미 충분히 많은 사람과 교류하고 있다.”	8.6%	8.4%

2) 친교관계 교류

친교관계 교류 정도도 1인가구에서 더 낮음

- 1인가구 친교관계 교류 사람 수는 다인가구보다 적은 편이며, 질적으로 높은 관계에서도 적은 편임
- 1인가구의 가까운 사이 관계는 27.8명이고, 이 중 더 돈독하고 심리적으로 의지하는 관계는 2.9명이며, 이 중 가까운 거리에 사는 사람은 1.9명임
 - 다인가구의 가까운 사이 관계는 30.2명이고, 이 중 더 돈독하고 심리적으로 의지하는 관계는 4.3명이며, 이 중 가까운 거리에 사는 사람은 2.2명임
 - 친교관계 평균 이외의 중앙값, 최소값, 최대값에서도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관계의 수가 적은 편임

[표] 친교관계로 연결된 사람과의 교류

구분		1인가구 응답자	다인가구 응답자
“가족 포함 가까운 사이인 사람 수는?”	평균	27.8명	30.2명
	중앙값	15명	19명
	최소값	0명	1명
	최대값	400명	430명
“가까운 사이인 사람들 중 더 돈독하고 심리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수는?”	평균	2.9명	4.3명
	중앙값	2명	3명
	최소값	0명	1명
	최대값	50명	52명
“돈독하고 심리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 중 가까운 거리에 사는 사람 수는?”	평균	1.9명	2.2명
	중앙값	1명	2명
	최소값	0명	1명
	최대값	10명	10명

3) 세대 간 친교관계

다른 세대 간의 교류는 1인가구 원로층이 가장 높음

- 다른 세대 간의 교류 정도는 1인가구 원로층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원로의 중장년층 교류가 82.8명으로 높음¹¹⁾
- 다른 연령대에서는 동일 세대 교류 대비 다른 세대 교류 정도가 1/2 수준 혹은 그 이하임
 - 특히, 청년 예술인의 원로층 교류 정도는 1인가구 2.4명, 다인가구 2.0명으로 낮음

[표] 다른 세대와의 친교관계 (세대간 가까운 사이 사람 수 평균)

구분		1인가구 응답자	다인가구 응답자
청년	↔ 동일 세대(청년)	13.1명	15.0명
	↔ 중장년층	6.5명	6.6명
	↔ 원로층	2.4명	2.0명
중장년	↔ 청년층	8.5명	10.3명
	↔ 동일 세대(중장년)	18.4명	21.5명
	↔ 원로층	7.4명	6.7명
원로	↔ 청년층	20.0명	6.0명
	↔ 중장년층	82.8명	15.5명
	↔ 동일 세대(원로)	78.3명	22.7명

11) 다만, 1인가구 원로층의 응답자수가 6명으로 통계적으로 검증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음

(4) 안전 영역 현황

1)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불안

1인가구는 주거비 부담이 높음

□ 주거비 부담 정도를 점수화하면, 1인가구는 3.60점, 다인가구는 3.25점으로 1인가구에서 더 높게 나타남¹²⁾

- 현재 주거비에 대한 부담정도를 파악하고자, 응답자에게 “모든 수입(본업과 부업 포함) 대비 주거비 부담은 어느 정도입니까?”로 질문함
- 1인가구에서는 위의 질문에 “나의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아 주거비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생활비도 부족하다” 응답자가 39.5%로 높게 나타남
- 다인가구에서는 “나의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라 주거비 부담은 일부 있으나, 생활하며 지낼 수 있는 정도이다” 응답자가 35.1%로 높게 나타남

[표] 주거비 부담 정도

구분	1인가구 응답자	다인가구 응답자
평균 점수 ※ 5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부담이 큼	3.60점	3.25점
“나는 소득이 충분하여 주거비 부담이 없다.” (1점)	2.2%	3.5%
“나의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절하며,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2점)	6.4%	19.9%
“나의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라 주거비 부담은 일부 있으나, 생활하며 지낼 수 있는 정도이다.” (3점)	36.3%	35.1%
“나의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아 주거비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생활비도 부족하다.” (4점)	39.5%	31.1%
“나의 소득 대부분이 혹은 내가 버는 소득 이상으로 주거비가 지출된다.” (5점)	15.6%	10.4%
전체	100%	100%

12) 분산분석결과, P값 0.000로 유의수준 9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2) 주거비 부담 완화 적정 지원금액

1인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 적정 월세 지원금액은 53.6만원

- 1인가구 응답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적정 월세 지원금액 평균은 53.6만원이며 중앙값은 50만원임. 연령대로 보면, 청년층 54만원, 중장년층 52만원, 원로층 56만원임
- 1인가구에게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적정 월세 지원금액이 얼마인지를 파악하고자, 상황을 가정하여 희망 월세 지원금액을 작성하게 함. 이에, 적정 월세 지원금액을 알아보고자 “단체/기관에서 귀하에게 주거비를 월세로 지원한다고 가정할 때, 월 몇만원 정도 지원받으면 최소한의 주거 불안이 개선될까요?”로 질문함

[표] 1인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가 될 수 있는 적정 월세 지원금액

구분		1인가구 응답자
1인가구 전체	평균	53.6만원
	중앙값	50만원
	최소값	1만원
	최대값	150만원
청년	평균	54.0만원
	중앙값	50만원
	최소값	1만원
	최대값	150만원
중장년	평균	51.8만원
	중앙값	50만원
	최소값	18만원
	최대값	150만원
원로	평균	55.8만원
	중앙값	50만원
	최소값	20만원
	최대값	100만원

3) 생활비 부담으로 인한 불안

적정 생활비와 실제 생활비와의 갭은 다인가구에서 더 높음

- 1인가구 응답자의 실제 생활비는 108만원으로 1인가구 응답자가 응답한 적정 생활비 136만원과는 28만원 차이가 남. 반면, 다인가구의 실제 생활비는 131만원, 적정 생활비는 173만원으로 42만원 차이가 남
- 생활비 수준을 파악하고자, 응답자에게 상황을 가정하여 실제 한달 생활비와 한달 기준 적정 생활비를 조사함. 이에 적정 생활비를 알아보고자 “귀하께서 생각하는 한달 기준 적정 생활비는 얼마입니까?”로 질문함
 - 세대별 실제 생활비를 보면, 1인가구는 중장년층이 112만원으로 가장 높으나 세대별 큰 차이가 없는 반면, 다인가구는 원로층이 176만원으로 가장 높음

[표] 한달 기준 생활비 수준: 1인가구 응답자

구분	평균	중앙값	최소값	최대값
적정 생활비	136만원	100만원	10만원	500만원
실제 생활비	108만원	100만원	10만원	300만원
생활비 차이	28만원			

[표] 한달 기준 생활비 수준: 다인가구 응답자

구분	평균	중앙값	최소값	최대값
적정 생활비	173만원	150만원	15만원	600만원
실제 생활비	131만원	100만원	10만원	500만원
생활비 차이	42만원			

[표] 세대별 한달 기준 실제 생활비 수준

구분		1인가구 응답자	다인가구 응답자
한달 생활비 평균		108만원	131만원
세대구분	청년 평균	107만원	110만원
	중장년 평균	112만원	160만원
	원로 평균	107만원	176만원

1인가구는 생활비에서 식비 비율이 거의 절반

- 1인가구의 일주일 식비는 11.7만원으로 생활비에서 식비 비율이 47.1%인 반면, 다인가구는 일주일 식비가 12.2만원으로 5천원 더 많으나 생활비에서의 식비 비율은 40.5%로 더 낮음
- 1인가구 사교비는 6.3만원, 여가활동비는 5.2만원이며, 다인가구에 비해 사교비와 여가활동비는 각각 4천원 더 많음
 -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서 생활비 내 식비, 사교비, 여가활동비 지출 비율이 모두 높음(식비: 1인가구 47.1% > 다인가구 40.5%, 사교비: 1인가구 25.3% > 다인가구 19.6%, 여가활동비 1인가구 20.9% > 다인가구 15.9%)
 - 다만, 다인가구 중 청년층은 1인가구와 지출 상황이 비슷함

[표] 일주일 동안의 식비·사교비·여가활동비

구분		식비	사교비	여가활동비
1인가구 응답자 평균		11.7만원	6.3만원	5.2만원
세대 구분	청년 평균	11.6만원	6.1만원	5.5만원
	중장년 평균	12.0만원	6.7만원	4.3만원
	원로 평균	13.8만원	8.7만원	4.5만원
다인가구 응답자 평균		12.2만원	5.9만원	4.8만원
세대 구분	청년 평균	12.1만원	5.8만원	5.0만원
	중장년 평균	12.2만원	5.8만원	4.5만원
	원로 평균	13.7만원	7.3만원	4.8만원

[표] 생활비 내 식비·사교비·여가활동비의 비율¹³⁾

구분		식비	사교비	여가활동비
1인가구 응답자		47.1%	25.3%	20.9%
세대 구분	청년	47.1%	24.8%	22.3%
	중장년	46.6%	26.0%	16.7%
	원로	56.0%	35.3%	18.3%
다인가구 응답자		40.5%	19.6%	15.9%
세대 구분	청년	47.8%	22.9%	19.8%
	중장년	33.1%	15.8%	12.2%
	원로	33.8%	18.0%	11.9%

13) 1개월의 평균 주수는 약 4.345주(52주/12개월)로, “일주일 식비 ×4.345”, “일주일 사교비 ×4.345”, “일주일 여가활동비 ×4.345”로 한달 비용을 계산하고 이를 응답자가 응답한 한달 생활비 대비 얼마의 비율인지로 산출함

4)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

1인가구는 정신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

- 1인가구의 건강 상태를 다인가구와 비교해보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나쁘나, 특히 “정신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
- 1인가구 응답자의 신체적 건강점수는 3.1점, 정신적 건강점수는 2.8점, 사회적 건강점수는 3.1점으로, 특히, 정신적 건강 상태에서 “나쁨” 응답자 비율이 26.8%로 높은 편임
 - 다인가구의 신체적 건강점수는 3.4점, 정신적 건강점수와 사회적 건강점수는 3.3점으로 모든 건강상태 점수에서 1인가구보다 높음

[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 수준

구분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
1인가구 응답자 평균 점수 ※ 5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함		3.1점	2.8점	3.1점
건강 상태	매우 좋음(5점)	1.6%	1.6%	2.9%
	좋음(4점)	25.8%	12.1%	22.9%
	보통(3점)	53.5%	56.7%	52.9%
	나쁨(2점)	15.6%	26.8%	18.8%
	매우 나쁨(1점)	3.5%	2.9%	2.5%
다인가구 응답자 평균 점수 ※ 5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함		3.4점	3.3점	3.3점
건강 상태	매우 좋음(5점)	10.4%	9.6%	9.1%
	좋음(4점)	33.6%	31.1%	31.6%
	보통(3점)	41.2%	40.2%	43.2%
	나쁨(2점)	13.6%	16.4%	12.4%
	매우 나쁨(1점)	1.3%	2.8%	3.8%

1인가구 건강상태는 불안한 경제활동과 불규칙적인 일상으로 영향받음

- 건강상태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를 보면, 가구유형에 관계없이 “불안한 경제활동”이 가장 크고, 그다음은 1인가구는 “불규칙적인 일상”인 반면, 다인가구는 “신체적 문제”임
- 1인가구는 “불안한 경제활동”이 36.9%, “불규칙적인 일상”이 29.3%,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19.2%임
 - 다인가구는 “불안한 경제활동”이 40.4%, “신체적 문제” 17.2%, “불규칙적인 일상”인 16.4%임

[표] 건강상태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 응답 비율

구분	1인가구 응답자	다인가구 응답자
신체적 문제 : 질병이나 질환, 신체 운동 부족 등	7.0%	17.2%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 : 우울, 외로움, 걱정, 자살생각 등	19.2%	11.6%
불규칙적인 일상 : 불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불규칙적인 일과 휴식 등	29.3%	16.4%
불안한 경제활동 : 불안정한 소득구조나 취업난 등	36.9%	40.4%
대인/인간관계 문제 : 사람과의 갈등, 관계의 어긋남, 왕따 등	4.4%	7.3%
사회생활 불공정성 : 일터에서의 갑질이나 위계적 문화 등	3.2%	7.1%
전체	100%	100%

(5) 공간 영역 현황

1) 거주지 선택 이유

1인가구는 경제적 사정에 맞춰 거주지 결정

- 현 거주지 선택이유를 보면, 1인가구는 경제적 이유가 32.8%로 가장 높고, 그다음 대중교통 편리성(19.7%), 예술활동 관련 일과의 물리적 거리(17.2%) 순임
- 반면, 다인가구는 경제적 이유가 24.7%로 가장 높긴 하나, 가족·친지 근접 생활권인 이유(20.2%)와 원래 오래전부터 살던 곳이라 익숙해서 사는 이유(19.4%)가 높은 편임

[표] 현 거주지 선택 이유

구분	1인가구 응답자	다인가구 응답자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서(저렴해서)	32.8%	24.7%
예술활동 관련 일하는 곳과 가까워서	17.2%	10.1%
예술활동의 영감이나 자극을 받기 좋은 환경이라서	10.2%	3.5%
대중교통이 편리해서(지하철 역세권 등)	19.7%	10.4%
가족, 친지 근접 생활권이어서	9.2%	20.2%
원래 오래전부터 살던 곳이라 익숙해서	8.0%	19.4%
그 외 다른 여러 이유: 가족 직업, 자녀 교육 등	2.9%	11.7%
전체	100%	100%

2) 직주 근접 여부

1인가구의 활동지역은 주거지로부터 교통편으로 1시간 이내

- 직주 근접 여부를 보면,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거주지를 정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으나, 교통편으로 1시간 이내 갈 수 있는 거리에 거주지를 정하는 경우가 많음
- 주 예술활동지와 거주지역간의 거리를 보면, 1인가구는 “교통편으로 30분~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 응답자가 35.7%이며, “걸어서 30분 이내 갈 수 있는 거리” 응답자는 17.9%임
 - 반면, 다인가구는 “교통편으로 30분~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 응답자가 28.5%이며, “걸어서 30분 이내 갈 수 있는 거리” 응답자는 22.0%임

[표] 예술활동의 주 활동지역과 거주지역과의 거리

구분	1인가구 응답자	다인가구 응답자
걸어서 30분 이내 갈 수 있는 거리	17.9%	22.0%
걸어서 가기에는 조금 멀지만 일반적인 도로사정에서 교통편으로 30분 이내 갈 수 있는 거리	17.8%	14.9%
일반적인 도로사정에서 교통편으로 30분~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	35.7%	28.5%
일반적인 도로사정에서 교통편으로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	14.3%	13.6%
주 활동지역이 따로 없고 예술활동을 할 때마다 매번 달라서 거리를 측정하기 어려움	14.3%	20.7%
주 활동지역이 해외임	0.0%	0.3%
전체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5.1. 서울1인가구 예술인 분석결과 종합

1인가구는 “관계”와 “안전” 부분이 취약하고, 집과 일터 분리가 필요

□ 본 연구는 1인가구 예술인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기 위해, 기존 선행연구인 예술인 실태조사와 서울1인가구 예술인 FGI, 서울거주 예술인 인터넷 서베이를 통해 조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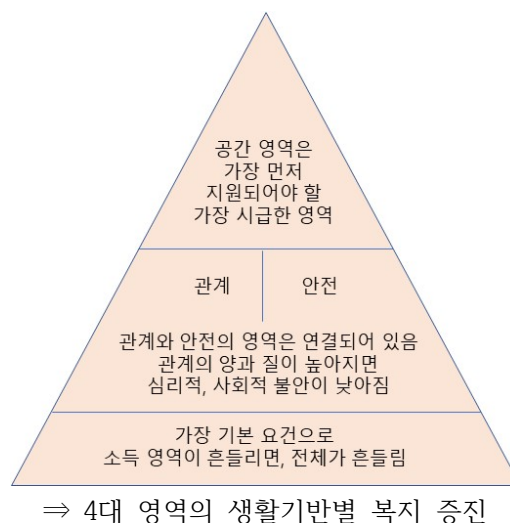
- “소득”의 영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그 수준이 저하될 수 밖에 없으나, 1인가구보다는 다인가구에서 더 어려움이 드러남
 - “소득”의 영역은 생계를 책임져야 할 임무가 더 큰 다인가구 예술인에서 더 고려해야 하는 영역임. 1인가구 예술인의 경우에도 예술활동 수입에서 어려움이 있으나,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추어서 생활 수준을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임
- “관계”의 영역은 1인가구 예술인에게 취약한 부분으로 사회적 교류 니즈가 있고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 커뮤니티를 필요로 함
 - 업무관계 교류에서 1인가구 예술인은 현재보다도 더 많은 교류를 하고 싶어하고, 친교관계 교류에서는 다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가까이 살아가서 쉽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의 부재로 사회적 고립이 되기 더 쉬운 구조임
- “안전”의 영역은 1인가구에게는 주거비로 인한 불안이 큰 요소이며, 정신적 건강도 염려되는 부분으로 주거비 지원과 심리 안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특히, 1인가구는 주거비 부담 문제만 해결되면 예술활동을 통한 자립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 게다가 우울, 불안 등 정신적 건강 상태가 나쁜 상황임
- “공간”의 영역은 주로 집에 있는 1인가구에게는 특히 집 밖의 연습실/작업실 등의 예술활동 공간 부재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음
 - 집과 분리된 일터에서 예술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니즈는 가구형태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니즈이나,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집과 일터의 경계가 모호하고, 집세에 대한 부담이 커서 외부 일터(작업실/연습실 등) 월세까지 이중으로 부담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임

5.2.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

인적 네트워크 구축 + 멘탈 케어 시스템 + 예술활동 전용공간 확충

- 소득 영역은 기존의 보편적 지원정책에서 1인가구 예술인의 지원 허들을 낮추고, 관계 영역은 “인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안전 영역은 “멘탈 케어 시스템”으로, 공간 영역은 “직접지원을 통한 전용공간 확충”으로 제언함
- 소득 영역: 1인 생활의 고립은 지원 관련 정보의 비대칭성을 야기시키고, 신청서 작성에 익숙하지 않거나 작성을 도와줄 멘토를 직접 찾아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허들이 높음. 이에 대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제도가 필요함
 - 관계 영역: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가진 여러 분야의 예술인과의 협업구조를 만들어 폭넓은 사회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함
 - 안전 영역: 특히 서울이 주거지이자 활동지이기에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위해서 주거비 지원 확대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함. 또한 우울과 불안을 공론화하여 멘탈 케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지지와 인정, 자존감을 향상시킬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함
 - 공간 영역: 간접 지원보다는 직접지원으로 전용공간 및 공동작업공간 구축 및 확대가 필요함

[그림] 1인가구 예술인을 위한 실질적 복지 피라미드



부록: 서울거주 예술인 4대영역 현황 온라인 설문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서울문화재단>에서는 서울거주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4대 영역(소득, 관계, 안전, 공간)의 현황을 분석하여 실질적 복지사업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설문조사 소요 시간은 약 5분~10분 사이이며,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와 제34호에 의해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Q1. 귀하의 현 거주지는?

- 1) 서울 → Q2 질문
2) 경기/인천 → 설문종료
3)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 지역 → 설문종료

Q2. 귀하의 서울지역 내 현 거주지는?

- | | | |
|---------|----------|---------|
| 1) 강남구 | 2) 강동구 | 3) 강북구 |
| 4) 강서구 | 5) 관악구 | 6) 광진구 |
| 7) 구로구 | 8) 금천구 | 9) 노원구 |
| 10) 도봉구 | 11) 동대문구 | 12) 동작구 |
| 13) 마포구 | 14) 서대문구 | 15) 서초구 |
| 16) 성동구 | 17) 성북구 | 18) 송파구 |
| 19) 양천구 | 20) 영등포구 | 21) 용산구 |
| 22) 은평구 | 23) 종로구 | 24) 중구 |
| 25) 중랑구 | | |

Q3. 귀하의 가구원수(본인포함 실제 동거하고 있는 가족원수)는?

- 1) 1명 → Q6, Q7 질문
2) 2명 이상 → A파트 질문

Q4. 귀하의 성별은?

- 1) 남성
2) 여성

Q5. 귀하의 나이는?

만 ()세

<1인가구만 해당>

Q6. 귀하께서 1인가구가 된 시점은 몇 년도?

년

Q7. 귀하의 1인가구 유형은?

- 1) 혼자 살고 싶어서 선택한 자발적 1인가구
2)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혼자사는 비자발적 1인가구

A 주 예술활동 내용

A1. 귀하의 현재 주 활동 장르는? (가장 주가 되는 것 하나만 선택)

- | | | |
|---------------|---------------------|------------------|
| 1) 문학 | 2) 미술 | 3) 공예 |
| 4) 사진 | 5) 건축 | 6) 음악(양악, 클래식) |
| 7) 국악 | 8) 대중음악 | 9) 방송연예(대중음악 제외) |
| 10) 무용 | 11) 연극(뮤지컬, 오페라 포함) | 12) 영화(애니메이션 포함) |
| 13) 만화(웹툰 포함) | 14) 예술일반 | |

A2. 귀하의 현재 주 활동 범위는? (가장 주가 되는 것 하나만 선택)

- 1) 음악예술인: 음악, 국악, 대중음악 분야에서 음악을 통해 활동하는 창작 예술인
- 2) 연행예술인: 연극, 영화, 무용, 방송연예 등 연기와 행위를 통해 출연자로 활동하는 창작 예술인
- 3) 조형예술인: 미술, 공예, 사진, 건축 등 조형의 과정을 통해 활동하는 창작 예술인
- 4) 문학예술인: 문학, 만화 등 언어나 만화를 표현 매체로 하는 창작 예술인
- 5) 기획제작자: 공연·전시기획자, 감독, 연출가 등 문화예술 기획, 연출, 제작 등의 활동가 및 스태프
- 6) 기획관리자: 문화 및 예술 관련 관리자로 행정, 공연 운영, 경영지원 등의 활동가 및 스태프

A3. 귀하께서 선택하신 위의 예술활동 입문(데뷔)연도는? 년

A4. 다음은 귀하의 본업과 부업 활동을 작성하는 질문입니다.
(전혀 하지 않을 경우에는 '0시간' 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A4-1. 귀하께서 선택하신 본업인 위의 예술활동은 일주일 평균 몇 시간 하십니까? 시간

※ 본업인 예술활동이란? 기획/관리, 제작, 공연, 전시, 출판, 발표 등 예술인으로 행하는 모든 창작 활동 및 이와 관련된 모든 부가적 활동(준비, 연습, 훈련, 학습 등)

A4-2. 귀하께서 부업(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예술활동)은 일주일 평균 몇 시간 하십니까? 시간

※ 부업인 비예술활동이란? 본업 이외에 생업을 목적으로 추가적으로 일하는 행위로 아르바이트, 강의, 자영업, 기타 업무 등 모두 포함

B 소득 영역 현황

B1. 다음은 본업과 부업을 통해서 얻는 수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입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0원' 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B1-1. 귀하의 본업인 예술활동으로 얻는 수입은 한달 평균 얼마입니까? 만원

B1-2. 귀하의 부업인 비예술활동으로 얻는 수입은 한달 평균 얼마입니까? 만원

B2. 다음은 본업인 예술활동으로 한정하여 얻는 수입의 적절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B2-1. 귀하의 본업인 예술활동으로 얻는 수입은 적절하십니까?

- 1) 매우 부족하다
- 2) 부족하다
- 3) 적절하다
- 4) 충분하다
- 5) 매우 충분하다

B2-2. 귀하께서는 한달 평균 몇 만원 정도의 수입이면
귀하의 예술활동에 대한 수입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원

C

관계 영역 현황

C1. 다음은 업무 관계로 연결된 사람과의 교류에 대한 질문입니다.

※ 여기서 업무는 본업(예술활동)과 부업(비예술활동) 모두 포함되며, 교류한다는 의미는 그 대상이 되는 사람과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쌍방 간에 상호작용하고 협업하고 소통한다는 의미(단순히 인사만 하는 형식적인 만남이거나 상호작용이 없는 관계(예: 식당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손님을 만나는 행위 등)는 제외)

- C1-1. 귀하께서 현재 본업인 예술활동을 위해 교류하는 사람 수는 대략 몇 명입니까?
-
- 명
- C1-2. 귀하께서 현재 부업(비예술활동)으로 교류하는 사람 수는 대략 몇 명입니까?
-
- 명
- C1-3. 귀하의 업무 관계 교류 정도는 적절하십니까?
-
- 1) 더 많은 사람과 교류하고 싶다.
2) 현재의 교류 정도면 적절하다.
3) 현재 이미 충분히 많은 사람과 교류하고 있다.

C2. 다음은 친교 관계로 연결된 사람과의 교류에 대한 질문입니다.

※ 여기서 친교 관계란 사적으로 친밀한 인간관계로 친구, 동료, 연인, 가족 등 포함

C2-1. 귀하께서 생각하는 평소 “가까운 사이인 사람”은 몇 명 있습니까?

※ 가까운 사이라 함은 사적인 만남과 어울림이 자연스럽게 편안한 관계를 뜻함

	구분	가까운 사이
문화예술계	청년:20~30대	()명
	중장년:40~50대	()명
	원로:60대 이상	()명
비(比)예술계	청년:20~30대	()명
	중장년:40~50대	()명
	원로:60대 이상	()명

- C2-2. 귀하께서 위에서 응답한 "가까운 사이인 사람들" 중 평소 아주 특별히 깊고 돈독한 관계이자 온전히 모든 것을 믿고 심리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있습니까?
-
- 명
- C2-3. 귀하께서 위에서 응답한 "돈독한 관계이자 심리적으로 의지하는 사이인 사람들" 중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서 한 시간 이내 바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있습니까?
-
- 명

D

안전 영역 현황

D1. 다음은 귀하의 주거비 부담에 대한 질문입니다.

D1-1. 귀하의 모든 수입(본업과 부업 포함) 대비 주거비 부담은 어느 정도입니까?

※ 여기서 주거비란 대출, 월세, 수리/유지 비용, 보증금 등 주거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주거 형태는 자가, 전세, 월세, 임대, 셰어하우스 등 다양하기에 어떠한 주거 형태이든 귀하께서 현재 느끼는 정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 1) 나는 소득이 충분하여 주거비 부담이 없다.
- 2) 나의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절하여,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 3) 나의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라 주거비 부담은 일부 있으나, 생활하며 지낼 수 있는 정도이다.
- 4) 나의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아 주거비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생활비도 부족하다.
- 5) 나의 소득 대부분이 혹은 내가 버는 소득 이상으로 주거비가 지출된다.

D1-2. 단체/기관에서 귀하에게 주거비를 월세로 지원한다고 가정할 때,
월 몇 만원 정도 지원받으면 최소한의 주거 불안이 개선될까요?

월()만원

D2. 다음은 귀하의 생활비 부담에 대한 질문입니다.

D2-1. 귀하는 평소 한달 생활비로 대략 얼마를 쓰십니까? (만원 단위)

만원

D2-2. 귀하께서 생각하는 한달 기준 적정 생활비는 얼마입니까? (만원 단위)

만원

D3. 다음은 귀하의 평소 지출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출이 없을 때는 '0원' 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금액
D3-1. 귀하께서 평소 하루 식비로 대략 얼마를 쓰십니까? (식비: 외식, 배달음식, 장보는 비용, 커피값 등) ※ 본인 1인의 개인 식비로 계산	()원
D3-2. 귀하께서 평소 일주일 동안 사교비로 대략 얼마를 쓰십니까? (사교비: 타인과의 교류를 목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나 유흥비)	()원
D3-3. 귀하께서 평소 일주일 동안 여가활동비로 대략 얼마를 쓰십니까? (여가활동비: 취미, 오락, 휴식, 문화생활 등 몸과 마음 충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용)	()원

D4. 다음은 귀하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 대한 질문입니다.

- ※ 신체적 건강: 심각한 질병이 없고 체력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
- ※ 정신적 건강: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이겨낼 수 있으며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
- ※ 사회적 건강: 소속 집단이나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중받으며 그 일원으로 역할을 잘하고 있는 상태

D4-1. 귀하는 현재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구분	건강 상태				
신체적 건강	매우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정신적 건강	매우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사회적 건강	매우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D4-2. 다음 보기 중 귀하의 평소 건강상태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한가지만 선택)

- 1) 신체적 질병이나 질환, 신체 운동 부족
- 2) 우울, 외로움, 걱정, 자살생각 등 심리적 불안한 상태
- 3) 불규칙적인 일상 (불규칙적인 식사와 수면시간, 불규칙적인 업무와 휴식시간 등)
- 4) 불안한 경제 활동 (불안정한 소득구조나 취업난 등)
- 5) 대인관계나 인간관계 (사람과의 갈등, 관계의 어긋남, 왕따 등)
- 6) 사회생활 불공정성(일터에서의 갑질이나 위계적 문화 등)

E 공간 영역 현황

E1. 귀하께서 현재의 거주지를 선택한 주된 이유는? (한 가지만 선택)

- 1)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서(저렴해서)
- 2) 예술활동(본업) 관련 일하는 곳과 가까워서
- 3) 예술활동(본업)의 영감이나 자극을 받기 좋은 환경이어서
- 4) 대중교통이 편리해서(지하철 역세권 등)
- 5) 가족, 친지 근접 생활권이어서
- 6) 원래 오래전부터 살던 곳이라 익숙해서
- 7) 위의 보기 이외에 다른 이유로: 가족 직업, 자녀 교육 등

E2. 귀하의 현재 거주지역과 예술활동(본업)을 하는 주 활동지역 간의 거리 차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 1) 걸어서 30분 이내 갈 수 있는 거리
- 2) 걸어서 가기에는 조금 멀지만 일반적인 도로사정에서 교통편으로 30분 이내 갈 수 있는 거리
- 3) 일반적인 도로사정에서 교통편으로 30분~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
- 4) 일반적인 도로사정에서 교통편으로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
- 5) 주 활동지역이 따로 없고 예술활동을 할 때마다 매번 달라서 거리를 측정하기 어려움
- 6) 주 활동지역이 해외임

E3. 다음은 귀하의 집에서 보내는 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분	시간
E3-1. 귀하의 하루24시간 중 집에 있는 시간은 몇 시간 정도입니까? (잠자는 시간까지 모두 포함)	()시간
E3-2. 귀하께서 E3-1에서 응답한 “집에 있는 시간” 중 잠자는 시간은 몇 시간 정도입니까?	()시간
E3-3. 귀하께서 E3-1에서 응답한 “집에 있는 시간” 중 예술활동(본업)을 하는 시간은 몇 시간 정도입니까? (단, 집에서는 예술활동을 전혀하지 않는다면 ‘0시간’으로 작성)	()시간

E4. 다음은 귀하의 일터(본업과 부업)에서 보내는 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따로 일터가 없을 때는 ‘0시간’ 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업을 목적으로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 예술활동을 하기 위해 집 밖의 작업실, 연습실, 카페, 오피스, 전시공간, 공연장 등에서 보내는 시간

※ 부업을 목적으로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 부업을 위해 집 밖의 일하는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

구분	시간
E4-1. 귀하의 하루24시간 중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은 몇 시간 정도입니까? (본업과 부업 일터 모두 포함)	()시간
E4-2. 귀하께서 E4-1에서 응답한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 중 본업을 목적으로 한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시간
E4-3. 귀하께서 E4-1에서 응답한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 중 부업을 목적으로 한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시간

[개인정보 수집 안내]

-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벤트 당첨자 대상 경품 배송에만 사용될 예정입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시 필수 항목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에는 경품 당첨에는 제외됩니다.
- 수집항목은 연락처 정보이고, 경품 지급 완료 후 즉시 폐기됩니다.

[선택사항]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

<서울문화재단>에서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귀사가 귀하의 개인 연락처 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선택사항] 수집 정보 기입

기프트콘 발송을 위해, 귀하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지 않음" 선택 시에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휴대폰 □□□-□□□□-□□□□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여 연구진

책임연구원	손지현(피카다컴퍼니 대표, KAIST 경영대학 경영공학 박사)
공동연구원	김정이(비커밍 콜렉티브 대표,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박사수료) 신재욱(경영지도사, KAIST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MBA)
연구원	최성인(추계예술대학교 문학영상대학 영상비즈니스과 학부과정) 우수연(추계예술대학교 문학영상대학 영상비즈니스과 학부과정)

■ 연구 총괄

(재)서울문화재단 김건희(예술청팀)
03084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122, 서울문화재단(대학로)
T: 02-758-2173

■ 연구 기관

피카다컴퍼니 리서치팀

서울1인가구 예술인 현황조사

발행일_2021년 12월

발행처_(재)서울문화재단